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결혼이민여성의 모빌리티스

제약과 극복에 관한 연구

-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한수정

결혼이민여성의 모빌리티스

제약과 극복에 관한 연구

-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상 인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한 수 정

한수정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정 현 주 (인)

부위원장 박 인 권 (인)

위 원 전 상 인 (인)

국문초록(16p)

본 연구는 공주시 사례를 통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한 모빌리티스 제약과 극복의 매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지역 계획의 관점에서 지역, 특히 읍면부에 이르는 소위 주변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빌리티스 제약 문제는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와 지역 불균형 발전의 유산으로 치부되어 왔고, 이에 인프라 확충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구조 상의 개선이 미시적 차원에 있는 개인의 이동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과, 공간에 접합된 사회적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모빌리티스 제약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개념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는 John Urry의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New Mobilities Paradigm)'과 Amartya Sen의 '토대역량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을 접목시킨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은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논함으로서, 개개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성취할 자유로서 이동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은 거시적이고 모호한 모빌리티스 이론의 요소들을 미시적 차원의 개인에게 적용하기 쉽게 만든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은 교통 및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원거리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이주를 감행하였으나,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는 이동의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연구자가 제안한 '토대역

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가 작동하는 제 1 층위에서, 젠더·인종·계층적 타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은 공간 환경 및 젠더화된 사회 관계라는 이중적인 모빌리티스 제약에 갇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도의 형태·이륜차 도로의 부재·제한된 버스 운행 시간·계절적 요인이라는 공간 환경 상의 문제와, 모성 실천·구속 및 감금·어머니 역할의 실천·가사 노동이라는 젠더화된 사회 관계 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제 2층위에서 공간 환경 중 지방도의 형태·이륜차 도로의 부재와 젠더화된 사회 관계 중 모성 실천·구속 및 감금은 결혼이민여성들로 하여금 공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이들은 읍내에서만 단시간, 단거리의 이동을 하는 '이동의 읍내 제한', 그리고 점차 외부의 자원, 정보 및 네트워크에서 유리되면서 '추가적 이동 제한'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간 환경 중 제한된 버스 운행 시간·계절적 요인, 젠더화된 사회 관계 중 어머니역할의 실천·가사 노동은 이들로부터 시간 주권성을 빼앗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제한된 버스 운행 시간과 여러 일정을 함께 조정할 수 없어 '배우자 시간 의존'을 하게 되었으며 시간 자원이 부족하고 시간에 대한 통제 감각이 없어 '미래 계획의 불확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모빌리티스 제약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이를 극복해 내는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이들을 능동적 주체로 부각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전략 및 협상을 거둬하며 성장하고, 자신의 모빌리티스 수준을 개선해 나갔다. 이들은 각기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삶의 모습, 즉 '기능(functionings)'을 위하여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세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큰 사장 되기', '발전하는 삶' '다같이 잘사는 마을 만들기'라는 기능을 추구하면서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모빌리티스 이론의 요소들을 토대역량 접근과 접목하여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가능케 하였다. 본 연구는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를 통해 이동이 곧 개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자유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동의 확대는 개인 자유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 발전 및 이동성에 관련된 인프라를 평가하는 대안적인 시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젠더 관점이 도시·지역 계획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하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 계획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 하부구조에 대한 개선 이상의 세심한 고려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 동안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많은 국가적 조사 및 연구들이 이동성이라는 관점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관점을 통해 이동이 자유이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결혼이민여성, 국제이주, 모빌리티스, 이동성, 토대역량, 공주시

학 번 : 2017-24041

목 차

I.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2
제1절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과 상대적 모빌리티	12
제2절 교통 연구에서의 젠더 문제	17
제3절 센(Sen)의 토대역량 접근	19
제4절 선행 연구 비판 및 분석의 틀 제시	27
III. 모빌리티스 제약 제 1층위: 사회·환경적 맥락	32
제1절 공간 접근성 제약	33
1. 공간 환경	34
(1) 지방도의 형태	34
(2) 이륜차 도로의 부재	34
2. 젠더화된 사회 관계	38
(1) 모성 실천	38
(2) 구속 및 감금	42
제2절 시간 주권성 제약	46
1. 공간 환경	46
(1) 제한된 버스 운행 시간	46
(2) 계절적 요인	50
2. 젠더화된 사회 관계	54
(1) 어머니역할의 실천	54
(2) 가사 노동	58

IV. 모빌리티스 제약 제 2층위: 개인적 맥락	63
제1절 공간 접근성 제약의 결과	63
1. 이동의 읍내 제한	63
2. 추가적 이동 제한	67
제2절 시간 주권성 제약의 결과	72
1. 배우자 시간 의존	72
2. 미래 계획의 불확정성	74
V. 모빌리티스 제약의 극복 전략 사례	77
제1절 사물 이동 활용하기: 대상자 R	77
제2절 목소리 내기(voicing): 대상자 J	89
제3절 마을 네트워크 형성하기: 대상자 V	99
VI. 결론	110
제1절 연구 요약 및 함의	110
제2절 연구의 한계	112
참고문헌	114
Abstract	120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 목록	8
[표 2] 토대역량의 목록 종합	27
[표 3] 대상자 R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종합	80
[표 4] 대상자 J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종합	90
[표 5] 대상자 V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종합	101

그 립 목 차

[그림 1] 개인의 토대역량 목록과 그녀의 사회적, 개인적 맥락의 비동적으로 양식화된 묘사	23
[그림 2] 장애 연구에서 토대역량접근의 접목	24
[그림 3] 연구자가 재구성한 토대역량 접근의 도식	29
[그림 4] 공주시 결혼이민여성들의 토대역량으로써의 모빌리티스가 작동하는 매커니즘	30
[그림 5] 모빌리티스 제약의 제1층위	33
[그림 6] 모빌리티스 제약의 제2층위	63
[그림 7,8] 대상자 F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초혼과 재혼 당시	69
[그림 9]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으로 본 대상자 R의 사례	76
[그림 10]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으로 본 대상자 J의 사례	89
[그림 11]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으로 본 대상자 V의 사례	9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바야흐로 고(高)이동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비행기·철도·자동차 등 모빌리티 시스템들의 유례 없는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손쉽게 이동하고 있다. 사회학자 John Urry는 이에 새로운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new mobilities paradigm)’의 등장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러한 시대에 복잡해진 이동의 양상을 보다 잘 묘사하기 위한 다섯 가지 이동의 형태¹⁾를 제안하였으며, 이들은 상호 의존하며 다변화된 이동을 가능케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Urry, 2007/2014) 이렇게 개개인이 다채로운 모빌리티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원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쫓겨나지 않고 부동의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에 있어 교육, 취업, 여가, 사회적 자본 등 여러 자원에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빌리티스의 시대에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이동하지 못한다는 현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모빌리티스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 사람들은 보통 신체적인 취약 지점을 지닌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며 교통 연구에서 ‘교통 약자’라고 불리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교통 약자 연구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시학, 2014), 성차 및 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통근통행의 문제는 다루어지되 그 이상의 범위로 논의를 확장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결혼이민여성들은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초점의 바깥에 존재하여 왔다. 학문적으로 인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1) 육체 이동·사물의 움직임·상상 이동·가상 이동·통신 이동

들은 도시·지역 계획에서도 관심의 주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 공간에 대해 결혼이민여성을 제외하고 논할 수는 없을 만큼 그들의 존재감은 분명하며, 이들로부터 파생된 연쇄 이주, 다문화가정 자녀 문제 등도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1970년대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외국인 신부'로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했으며, 2000년 전후로 대규모 입국을 통해 지금까지도 농촌의 대표적인 이주민(migrant) 집단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 사회적 관계는 공간을 통해 확장되며, 특정한 공간적 형태를 취한다. (Massey, 1994/2015) 즉 한 장소의 특수성은 단지 공간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접합된 사회적 관계들의 조합과 배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이라는 젠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의 농촌으로 소환된 결혼이민여성들은 이 특수한 공간과 상호적으로 관계를 구성해 왔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 젠더, 계층 교차성이라는 사회적 요소들과 공간은 공진화해 왔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스의 양태는 한국의 농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응답할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결혼이민여성을 향한 학문적 관심은 처음에는 상업적인 매매혼에 대한 여성단체 및 언론의 비판으로, 그 다음에는 이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 및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주, 2007) 그리고 현재는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젠더 및 이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스케일을 뛰어넘는 국제결혼 및 돌봄노동의 레짐을 추적해 온 이주 및 젠더 연구자들도 막상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한 이동성 제약의 문제를 놓쳐 온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모빌리티스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공간적 현실, 사회적 구조 및 개인적 요인들이 결혼이민여성들의 이동성 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현주(2007) 이외에는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모빌리티스 문제는 오래도록 학계의 관심에서 방치되어 왔다.

이는 첫째 모빌리티스 연구 자체가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한국에서 모빌리티스 연구는 대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Urry의 이론에 대한 소수의 연구,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 진행된 교통 약자의 접근성 및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외에는 그다지 폭넓게 행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모빌리티스 연구가 어느 학문 분과에도 정확히 속하지 못하고 교통 연구, 이주 연구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둘째로는 결혼이민여성 문제 접근에 있어 중층으로 결정된 모빌리티스 제약의 조건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사회복지 연구, 젠더 연구, 국제이주 연구로 흩어져 탐구되어 왔다.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적응과 가치 갈등의 측면에서 이들을 연구하였고, 젠더 관점은 주로 어머니역할(mothering)과 정체성의 문제를, 국제이주 연구는 이주와 주체성의 문제를 주로 탐구하였다. 이에 따라 누락된 것이 바로 ‘공간’ 및 ‘이동’의 문제이다. 이들 연구가 각각의 분과에서 연구되면서 공간과 사회적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며, 일상적 이동을 통해 이것을 밝혀야 한다는 문제의식 또한 등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토대역량 접근’의 분석틀을 기용, 결혼이민여성들의 모빌리티스 제약과 함께 이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개인적 맥락을 탐구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모빌리티스에는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이라는 한 축만으로도, 사회라는 한 축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출신국이라는 맥락 간의 교차, 한국적 맥락에서 도농이라는 공간 사이의 교차, 젠더화된 사회 관계에서 부과되는 역할 간의 교차 등이 이들의 모빌리티스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모빌리티스 제약의 문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에만 대답될 수 있다.

도시·지역 계획의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모빌리티스 제약은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와 지역 불균형 발전의 유산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 지역을 발전시킬 기업의 입주 등 지역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광역지자체 및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이동성 개선은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시외 및 시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간 구조 상의 개선이 미시적 차원에 있는 개인의 이동성 개선을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전술하였듯이 결혼이민여성들의 시선, 즉 젠더, 인종, 계층적 타자의 시선으로 공간을 보았을 때에야 도시·지역 계획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정책이 현실의 제약을 불완전하게 보완하는 가운데에서도 개인은 전략과 협상을 거듭하며 성장하고 공간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일부 다문화 및 복지 정책에서 상정하고 있듯이 영원히 약자로 머무르려 하지 않으며, 실제로 다양한 전략과 협상을 통해 자신의 모빌리티스 수준을 개선하고 생활 공간을 넓혀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동시에 이들의 모빌리티스 제약 극복 전략에 대해 연구자가 분석한 바를 제시함으로써 도시·지역 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 대상지 개요

본 연구는 충청남도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다. 공주시는 도농복합시로 서 대학 및 시청 소재지인 동부와, 농촌의 특성을 유지하는 읍면부의 차이점을 분할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다문화 혼인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지 후보로 선택하였다. 이후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권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 활발하며 연구에 협조적인 지역을 물색, 최종적으로는 공주시가 선택되었다. 공주시를 대상지로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은 비교적 대중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동부와, 산지로 둘러싸여

지방도로를 통하여만 통행이 가능한 읍면부의 두 공간 환경 상에서 결혼 이민여성들의 모빌리티스 행태를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공주시는 충청남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서북의 차령산맥과 동남의 계룡산으로 싸인 분지 지형의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서쪽으로는 예산군 및 청양군, 남쪽은 논산시와 부여군, 북쪽은 천안시와 접하고 있으며,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 4774호 ('94. 8. 3)에 의거하여 공주군과 통합, 도농복합시로 확장되었다. 이에 시청 및 공주교육대학교·공주사범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동부는 상대적으로 도시 특성을 띄며, 읍면부는 고령화 농업지역 및 혼합적·점이적 농업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김정연 외, 2014) 충청남도의 많은 지역들처럼 공주시 또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공주시의 인구²⁾는 2011년 총인구수 124,748명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 4월 현재 108,432명까지 감소하였다. 공주시는 세종시의 조성에 따라 인구유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종시로의 전출현상은 지금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4; 세종시·공주시, 2014)

이처럼 공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경험하고 있지만, 공주시의 외국인 인구는 2011년 외국인 2,277명에서 감소하다가 2014년 1,731명을 기준점으로 하여 다시 서서히 상승, 2017년 현재는 1,996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구수는 신관동(8,517), 옥룡동(4,349), 월송동(4,053)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은 사곡면(1,547), 신평면(1,551), 탄천면(1,623)으로 대체적으로 동부에 인구가 많고 읍면부는 적었다. 그러나 외국인 인구 비율³⁾은 탄천면(3.48%), 신관동(3.2%) 신평면(3.11%) 순으로 높고 월송동(0.88%), 반포면(0.94%) 웅진동(0.99%) 순으로 낮아, 읍면에서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공주시의

2) 공주시 통계(2017). 년도별 통계연보.

http://www.gongju.go.kr/prog/yearBook/list.do?st_solidarity=2010&st_year=2017&year=2017 에서 2019/06/05 인출.

3) 공주시 통계(2017). 년도별 통계연보.

http://www.gongju.go.kr/prog/yearBook/list.do?st_solidarity=2010&st_year=2017&year=2017 에서 2019/06/05 인출.

2017년 기준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중 국적 순으로는 중국 432명, 베트남 429명이 가장 많았다.

공주시에서는 다문화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공주시의 전체 혼인 건수 대비 다문화 혼인 건수, 즉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3년 12.1%에서 소폭 상승과 감소를 거듭하다가, 2016년과 2017년 동일하게 11.7%를 기록하였다. 공주시 외국인과 혼인건수 중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건수는 2007년 135명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0년 88명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 29명에서 소폭 상승, 2017년에는 34명에 이르렀다. 2010년 이래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건수는 항상 읍면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7년의 혼인 중 20명이 읍면부, 14명이 동부에서 이루어진 혼인이었다. 이 중 2017년 아내 국적은 중국 7명, 필리핀 4명, 베트남 19명, 인도네시아 1명, 기타 3명으로 집계되어, 공주시의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은 전형적으로 농촌에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성과 혼인하는 결혼이민의 특성으로 추정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공주시의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체적으로는 F6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하였거나, 기타 비자로 입국한 후 F6비자로 전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F6비자를 유지하고 있는지, F5비자로 변경을 하였거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는 2005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5: 김지은, 2007에서 재인용) 정부가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는 공식 용어로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섭외는 계층화된 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과 스노우볼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즉 먼저 인터뷰 대

상자를 이주여성과 지역 사회의 관계자라는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 내에서 핵심 정보원을 접촉하고 연쇄적으로 관련자를 소개받았다. 표본 선택에 있어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적절성’과 연구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해야 하는 ‘충분성’의 기준에 유의하였다. (신경림, 2004; Creswell, 2013/2015). 이에 따라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연구 대상을 섭외하되 한국 거주 기간에 있어 다양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1~5년 거주자 9명, 6~10년 거주자 6명, 11~15년 거주자 6명, 16~20년 거주자 2명이 섭외되었다. 또한 공주시 결혼이민여성의 국적 일반으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가장 많으나 연구에서는 되도록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을 포함시키는 데 주의하였다. 이에 중국 6명, 필리핀 6명, 베트남 5명, 캄보디아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러시아 1명, 라오스 1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동부와 읍면부 거주자를 고루 포함시켜 공간 환경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동부 거주자 10명, 읍면부 거주자 10명, 읍면부에 거주 후 동부로 이동한 동부 거주자 3명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공주시 경찰서, 새마을 부녀회, 방문 교사, 여성 기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출신국	비자상태	거주기간	거주지
A	중국	F6	12년	동부
B	필리핀	F6 → 귀화	12년	읍면부 → 동부
C	필리핀	F6	5년	동부
D	필리핀	F6 → 귀화	10년	동부
E	베트남	F6	3년	읍면부 → 동부
F	중국	F6 → 귀화	11년	읍면부 → 동부
G	중국	F6	8년	동부
H	중국	F6	3년	읍면부
I	캄보디아	F6	1년	동부
J	우즈베키스탄	F6 → 귀화	11년	동부
K	라오스	F6	6년	읍면부
L	우즈베키스탄	F6	3년	동부

M	베트남	F6	3년	동부
N	베트남	F6	1년	동부
O	필리핀	F6	5년	읍면부
P	필리핀	F6	6년	읍면부
Q	필리핀	F6 → 귀화	19년	읍면부
R	중국	F6 → 귀화	10년	읍면부
S	캄보디아	F6	3년	읍면부
T	중국	F6 → F5	14년	읍면부
U	러시아	F6 → 귀화	18년	동부
V	베트남	F6 → 귀화	10년	읍면부
W	베트남	F6 → 귀화	12년	읍면부

[표 1] 연구 대상자 목록

본 연구의 대상자가 주로 모집된 곳은 공주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수업과 운전 면허 수업을 통해서였다. 공주시의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개소, 2008년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한 이후 2016년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출범,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공주대학교 사단법인 ‘교육나눔’으로 위탁법인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7년 개소 이후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 중 다수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및 방문교육을 통해 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주시 센터는 전체 결혼이민여성의 72.3%에 이르는 회원 등록율⁴⁾을 보이며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센터의 협조를 얻음으로 다수의 결혼이민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회의 예비조사 시행 이후 2019년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주시에서의 현지 조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으로는

4) 공주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2015/12)

<http://www.liveinkorea.kr/center/main/main.do?centerId=gongjusi> 에서 2019/06/05 인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이 병행되었으며, 심층면접의 경우 센터, 경찰, 여성 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하여 접촉한 총 23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기간 동안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운전면허 교육, 법률 교육, 부모 교육, 댄스 프로그램 등의 모든 수업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또한 센터 외에도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 토론회,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여성들 사이의 공식적·비공식적 친교모임, 여성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방법론 중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연구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이동이라는 현상의 내면적 의미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의 이동에 대해 각 개인의 상황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전체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이동’이라는 현상의 본질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참여자의 체험에 대한 기술을 개방적 태도로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 다음 각각의 연구참여자의 기술로부터 전체적 인식을 얻은 후 의미단위를 도출한다. 그 후 구별한 의미단위에 대해 학문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단위들을 일반적 범주로 도달하게 한다. 그 다음 본질적인 의미와 그 의미들의 관련성을 밝히면서 구조를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진 원자료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점검한다. (Crotty, 2001/2004; Giorgi, 1985).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된다.

a.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식적인 면담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현장의 경험에 완전하게 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할 정보는 관찰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형태와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구하고, 현장노트를 작성한다.

b. 인터뷰

인터뷰의 경우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을 따른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와 비구조화된 인터뷰의 중간 형태를 말한다. 연구자가 인터뷰 가이드 혹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구조화된 인터뷰에서처럼 엄격하게 질문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추가적인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답변이 비교적 덜한 형식적 제한 속에서 심층적이고 폭넓게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의도나 편향된 가치가 인터뷰 내용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유기웅 외, 2012)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점, 또 두려움이나 연구 목적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한 번에 솔직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채택하였으며,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시 통역을 도와줄 같은 국적의 친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필리핀 여성의 경우 영어가 사용된 부분이 있어 이를 연구자가 전사 후 번역하였다.

c. 편향 제거

관찰자 편견(observer bias)은 관찰연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로, 관찰자 자신의 연령, 성별, 사회적 계층, 가치, 기대 등이 무의식 중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째 연구대상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둘째로 추가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 1 절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과 상대적 모빌리티

1.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

Urry를 위시한 첫 세대 모빌리티 이론가들은 사회 세계(social world)를 오직 개별 '사회들'의 집합체 혹은 정적이고 예측된 '컨테이너'로 보는 전통적인 사회학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과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Urry, 2007/2014) 이에 이들은 사회과학에 있어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가 바로 Urry의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The New Mobilities Paradigm)'이다. 역사적으로 사회과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공동체와 현존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면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었다면,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에서 근접성의 중요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대신 이 패러다임은 교통과 통신의 다양한 기술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공-현존(co-presence)과 부재를 거듭하는 사람들과 사물들에 주목한다. (Urry, 2007/2014) Urry는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을 통하여 볼 때 여태까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졌던 사람과 사물들을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 그리고 거대한 이동의 자유와 시스템 의존성이 결합되어 있는 현재의 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빌리티스(mobilities)의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빌리티스'의 개념은 상호의존적인 여러 형태의 이동을 일컫는다. 모빌리티스는 사람의 힘에 의한 이동 즉 걷기 등과 더불어 자전거, 버스, 열차, 선박, 비행기 등 기술에 의존한 사람의 이동과 화물의 운송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로컬,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와 정보의 이동도 포함한다. 또한 모빌리티스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개인-대-다자 또는 다자-대-다자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팩스, 전화, 휴대폰 등을 통한 개인-대-개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보 그리고 이미지 등의 흐름을 조직하는 고정적 하부시설과 경계 또는 게이트 등과 같이 실제적 이동이나 잠재적 이동을 제한하고, 조정하고 규제하는 것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빌리티스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분리된 영역들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Sheller and Urry, 2006; 윤신희·노시학 (2015)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Urry는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은 이하의 다섯 가지 상호 의존적인 모빌리티들 사이의 복잡한 결합체(complex assemblage)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한다. (Urry, 2007/2014)

- ① (일상적 통근에서부터 일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망명에 이르기까지) 대비되는 시공간 형태로 조직된 직장, 여가, 가족생활, 즐거움, 이주, 탈출을 위한 사람들의 육체 이동(corporeal travel)
- ② 선물이나 기념품 교환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판매자로의 사물(objects)의 물리적 움직임
- ③ 다양한 인쇄·시각 매체에서 나타나고 움직이는 장소와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상상(imaginative) 이동
- ④ 종종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지리적·사회적 거리를 초월하는 가상 이동(virtual travel)
- ⑤ 메시지, 텍스트, 편지, 전신, 전화, 팩스, 이동 전화를 매개로 전달되는 개인 대 개인 메시지를 통한 통신 이동(communicative travel)

다섯 가지 모빌리티의 형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발전된 통신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낳았다. 사회적 네트워킹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서의 대면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화, 이동 전화, 노트북 컴퓨터, SMS 메시지, 무선 통신 등의 모바일 기계(mobile machines)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이동 중에도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러한 통신 기술에 접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형태의 네트워킹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살거나 일하는 곳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네트워크의

노드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필요하거나, 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 여가, 우정, 가족과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에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모빌리티의 부담'(Shove, 2002)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Urry가 파악하기에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 하의 세상에서 '모빌리티의 부담'은 단순히 접근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는 첫째 배제의 공간적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끊임없이 변하는 모빌리티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숨은 욕구(blocked desire)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운 하부 구조가 없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둘째로는 배제의 시간적 차원에서 사회 생활의 일정 짜기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유연해지며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비공식적 연계와 차원을 '공식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Urry는 접근에 대한 제약들을 단순한 접근성이라는 이름으로 일원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Urry, 2007/2014)

이러한 인지 가운데 Urry는 네트워크 자본의 개념을 제안한다. 간단히 정의해, 네트워크 자본은 감정적, 재정적,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량이다. Urry가 특별히 자본의 개념을 가져오는 것은, 모빌리티의 힘보다는 이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의 사회적 결과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 즉 물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네트워크 자본이 많은 집단은 사회관계를 형성·재형성하는 데 상당한 이익을 향유하며, 감정적·재정적·실제적인 혜택을 얻는데, 이것은 여타 자본에서 파생되는 혜택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 네트워크 자본의 여덟 가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Urry, 2007/2014)

1. 일련의 적절한 문서, 비자, 돈 자격증 등
: 이것들은 사람의 신체를 어떤 장소, 도시, 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2.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타인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구성원)
: 이들은 초대, 환대, 모임을 제공하며, 그래서 가끔씩의 방문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소와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한다.
3. 이동 역량(movement capacities)
: 여러 상이한 환경 속에서 먼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역량,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보고 탈 수 있는 역량, 짐을 나르거나 옮길 수 있는 역량, 운행 시간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역량,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 연결망과 모임을 만들고 재조정 할 수 있는 역량, 이동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스카이프 (skype)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 능숙도
4. 위치에 구속받지 않는 정보와 접촉 지점
: 정보통신이 도달하고 저장되고 검색될 수 있는 고정된 또는 이동하는 지점. 여기에는 문서일기와 전자 일기, 주소록, 자동 응답 전화, 비서, 사무실, 전화 자동 응답 서비스, 이메일, 웹 사이트, 이동 전화 등이 포함된다.
5. 통신 장비
: 특히 이동 중일 수도 있는 다른 사람과 이동 중에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장비.
6. 적절하고 안전한 모임 장소
: 이동 중에도 그리고 도착지에서도 신체가 물리적·감정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소. 이런 장소로는 사무실, 클럽 공간, 호텔, 가정, 공공 공간, 거리 모퉁이, 카페, 사이 공간 등이 있다.
7. 접근성(access)
: 자동차, 도로 공간, 연료, 엘리베이터, 비행기, 기차, 배, 택시, 버스, 전철, 소형 버스, 이메일 계정, 인터넷, 전화, 기타 등에 대한 접근성
8. 시간 및 기타 자원
: 앞의 1번에서 7번까지를 관리하고 조율하기 위한 시간 및 그 밖의 다른 자원들. 특히 종종 발생하게 될 시스템 실패가 있을 때.

2. 상대적 모빌리티

Urry가 네트워크 자본의 개념을 정식화하면서 자본의 보유 유무를 통해 모빌리티의 불균등한 분배를 인지하였다면, Sheller를 위시한 여타 연구자들은 불균등한 분배를 곧 불평등으로 인지하며 '상대적 모빌리티(relational mobilit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상대적 모빌리티'의 개념은 이동성의 다른 편에 상대적인 부동성(immobility)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모빌리티스가 한편으로 연결성, 중심성, 역량 강화(empowerment)을 부여하는 만큼 다른 편에서는 단절, 사회적 배제, 불가시성(inaudibility)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Sheller, 2014) 이들은 이러한 모빌리티스의 상대성이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배제를 이동의 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시하고 있다. (Sheller, 2013, 2017; Hannam, 2006; Schiller and Salazar, 2013; Uteng and Cresswell, 2008)

이상의 시각을 가진 모빌리티스 연구자들은 모빌리티스를 단지 사람들이 속해 있던 지리적 제약을 풀어 놓는 해방의 힘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고자 한다. 비록 모빌리티스 연구가 사회 세계를 단지 정주주의적인 컨테이너(sedentary container)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통과하고, 지나다니며 동시에 머무르고, 거주하고, 속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Adey, 2010; Sheller, 2013)

이러한 상황 혹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특히 모빌리티 시스템 실패가 일어났을 때 확인할 수 있다. Sheller(2013)는 개인이 속한 범주에 따라 모빌리티의 역량(capabilities)이 차등적이라는 점을 모빌리티 시스템 붕괴 상황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2010년 아이티 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에서 가장 늦게 탈출하거나 혹은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 인종적 약자들이었다. (Sheller, 2013) 이외에도 모빌리티 시스템의 부재 상황에서 특정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약자들의 이동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Sheller 2006; Cresswell 2008)

따라서 Sheller는 최근 상대적 모빌리티스에서 한 발 나아가 불균등한 모빌리티스(uneven mobilities)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지구화, 코스모폴리타니즘, 포스트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어바니즘, 감시(surveillance), 각종 모빌리티의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Sheller는 불균등한 모빌리티스의 개념을 정식화하고자 하는 작업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Sheller, 2018) 이외에도 상대적 모빌리티스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차별화된 모빌리티(differentiated mobilities)"를 논한 Frith(2012), "모빌리티에 대한 권리(mobility rights)" 개념을 제시한 Baerenholdt (2013) 외 다수의 연구자가 있다.

제 2 절 교통 연구에서의 젠더 문제

모빌리티스를 다룬 연구들 이전에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교통 접근성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1980년대 미국에서 대두된 이래 오늘날까지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연결 및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다. (노시학, 2014) 본 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교통 연구에서 여성을 초점으로 하였던 연구의 흐름을 언급한 후 본격적으로 시공간적 접근성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교통 서비스의 사회적 계층 간 분배와 관련지어서 사회적 약자의 교통 접근성 문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다룬 이론적 연구로는 노시학(1997, 201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교통과 관련된 '수직적 형평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동이란 단순히 거리극복을 위한 물리적 행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목적지에 접근함으로써 이동자의 사회, 경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가 분류한 교통의 수직적 형평성 연구는 크게 두 부류, 즉 첫째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신체적 약자, 둘째는 성차 및 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및 취업기회의

제한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노시학, 2014)

그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성차의 문제를 다룬 것은 후자의 연구 흐름으로써, 1990년대 서구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중산층 취업 여성들의 통근통행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도시 시설로의 접근성에 관심을 두고 직주균형을 위한 남녀 통근거리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Levine, 1998; Peng, 1997; Wacha et al, 1993; 김현미,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여성들이 가정에서 맡고 있는 젠더 역할로 인해 통근통행 거리가 제한되거나, 특정 통행 방식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성들의 모빌리티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Massey, 1994/2015) 공간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통행하기 편안하며 오히려 남성들의 통행은 사회적으로 격려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Law, 1999) 그러나 이 기간의 연구는 주로 통근통행을 주제로 하였으며, 북미 서구(Global North) 지역에 대체적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써 국내에서 진행된 여성의 통근통행 특성 및 직주분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수도권 통근통학 통행실태 조사보고 및 생활시간조사 자료 등 통계화된 수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통근통행 특성과 이동 시간을 분석하였다. (노시학, 1998, 2000; 손문금, 2010) 특히 이 중 자녀 연령대별 여성 집단간 접근성의 특성을 연구한 김현미의 연구는 여러 연구에서 가지는 시·공간적 측면의 부재를 한데 묶어 포착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는 여성의 활동에서 공간적 측면을 무시하였던 시간 사용 연구(Time use studies)와, 통근행태를 주로 공간구조 특성과 연관지어 보아 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김현미, 2008) 그는 이러한 두 갈래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시간지리학의 개념인 시공간적 접근성(space-time accessibility)을 통해 돌파하고자 하였다. (김현미, 2007; 2008)

김현미(2008)에 따르면 접근성은 '장소의 접근성(place accessibility)'과 '사람의 접근성(individual accessibil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소의 접근성'은 전통적인 지리학에서의 거리 인접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렇게 공간을 반영한 인프라, 정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개념의 대표격으로는 Urry의 네트워크 자본 중 7번 개념인 접근성(access)이 있다. 이는 '자동차, 도로 공간, 연료, 엘리베이터, 비행기, 기차, 배, 택시, 버스, 전철, 소형 버스, 이메일 계정, 인터넷, 전화, 기타 등'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다. (Urry, 2007/2014) Cass, Shove and Urry(2005) 또한 접근성의 조직적 요소(organizational component)에 '차가 없을 때 대중 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버스의 노선 방향, 제공하는 도착 지점들의 다양성, 버스비, 버스를 탔던 경험의 질 등'을 포함시키면서, 도시와 그 주변부의 거주민들이 갖는 '장소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동성을 연구한 Kaufmann(2014)도 접근성(access)의 첫 번째 정의로 '선택지(options)' 즉 접근 가능한 모든 수송 및 통신 수단,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 접근 가능한 모든 서비스 및 장비라는 '장소의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장소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이동성 및 교통 연구를 아울러 매우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람의 접근성'은 개인의 시간 이용이 결부된 개념이다. 즉 도시 시설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하느냐뿐 아니라 각 개인의 스케줄 상에서 이러한 시설들로 갈 시간이 있는가, 이용할 시간이 있는가도 포함된다. (Kwan and Weber, 2003: 김현미, 2008에서 재인용) 이는 접근성의 네 가지 요소에 시간의 요소(temporal component)를 포함시킨 Cass, Shove and Urry(2005)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데, 이들은 교통의 시간과 사람들의 시간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먼저 교통 시간의 경우 '대중' 교통과 통근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장보기를 할 만한 장소로 갈 만한 교통 서비스가 마땅치 않거나, 시간 및 서비스 제공 빈도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문제를 말한다. 사람들의 시간은 '시간 주권'과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 체계(temporal regime)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즉 여성의 경우 저녁 준비와 같은 가정 내에서의 가사 스케줄 패턴이 부과되는 등 시간 '자원'은 실제로 가정 내에서 다르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Cass, Shove and Urry, 2005)

정리하자면 접근성에는 공간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차원을 반영한 접근성 개념은 전통적인 지리학의 거리 척도에 더하여 여러 시설, 인프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시간의 차원을 반영한 접근성 개념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반영함으로써, 삶의 질을 살펴보는 데에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Kwan et al, 2003) 이에 따라 김현미(2008)는 거리 근접성에 기초한 '공간적' 접근성 이외에도 시간의 개념이 접근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성차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발전하였다는 점은 여성들이 갖는 시간 및 공간 접근성은 남성들이 갖는 접근성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젠더화된 사회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제 3 절 센(Sen)의 토대역량 접근

인도의 경제학자 Amartya Sen이 창안한 토대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⁵⁾은 전통적으로 '발전'을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복지의 향상으로 정의했던 발전경제학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다. Sen은 기존 발전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온 GNP, 소득, 효용 혹은 복지 대신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 속에서 그/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자유, 즉 토대역량의 관점으로 발전을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Sen, 1980: 유성상, 이은혜,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또한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길 이유가 있는(reason to value)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Robeyns, 2005)

5) 본 연구는 capability라는 용어와 더불어 competence 혹은 competency 등이 모두 동일하게 역량으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량이라는 개념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상황과 실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의 틀로 capability 개념을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은 극복되어야 할 용어라고 판단한 유성상 외 (2015)의 입장을 따른다. '토대역량'은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적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번역어이다. (유성상 외, 2015)

토대역량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능(functionings)과 토대역량(capabilities)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먼저 기능은 한 개인이 성취한 결과이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들이다. (Sen, 2003; Clark, 2005a에서 재인용) 기능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옷을 입는 것 등 기초적인 것부터 드럼 솔로를 연주할 수 있는 것, 캐비아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한 것을 아우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각 개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여 성취한 결과물들이다. (Alkire and Deneulin, 2009)

반면 토대역량은 이러한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freedom)이다. 토대역량을 설명함에 있어 자주 활용되는 표현이 바로 '예산 목록(budget set)'인데, 이는 즉 토대역량은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집합이라는 것이다. (Alkire, 2005) 다시 말해 토대역량은 자신이 원하는 기능들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제 기회 혹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인 것이다.⁶⁾ (Sen, 1999) 토대역량은 단순히 제약이나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낼 수 있거나 즐길 만한 것을 해내거나 즐기기 위한 적극적인 힘 혹은 능력(capacity)이라고 Sen은 묘사하고 있다. (Sen, 1999/2013)

Sen이 토대역량과 기능을 구분한 것은, 결과물인 기능만을 평가하는 시각은 결론적으로 기존의 공리주의적 시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 자체에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Sen, 1996a; Alkire, 2005에서 재인용) 이렇게 개인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가의 여부는 특히 개발도상국 연구 혹은 억압받는 사회적 집단에 속한 사람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만일 기능의 확대만을 평가한다면 이는 강제, 억압, 정치적 지배 혹은 식민 지배 등의 맥락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Alkire-Deneulin, 2009) Sen은 여기에서 단식과 기아 문제의 차이를 예시로 든다. 만일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물만 놓고 판단한다

6) 다만 그 내용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Alkire, 2005)

면, 종교적 가치를 좇아 단식하는 사람과 음식이 없어 굶는 사람의 차이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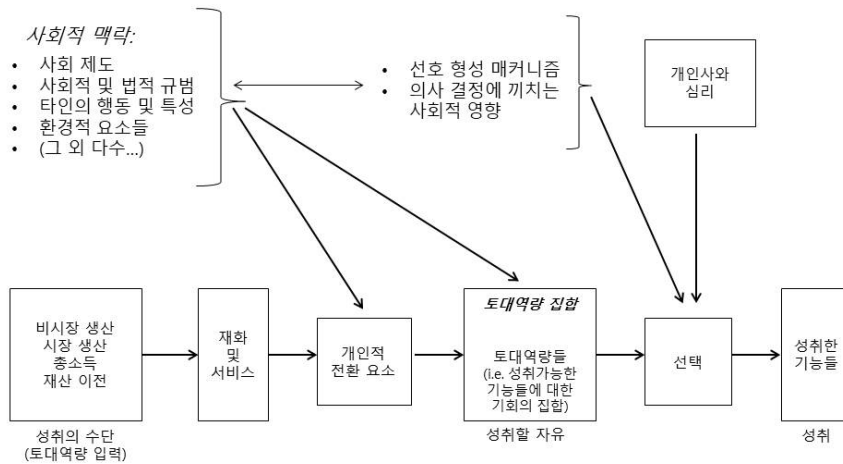
즉 토대역량 접근의 대명제는 각 개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것과 될 수 있는 것(beings and doings)'을 성취할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Alkire, 2005) 여기에서의 자유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자유를 벗어나 한 개인이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이자 실질적인 자유(substantive freedom)를 의미한다(Sen, 1999: 유성상, 이은혜, 2016에서 재인용, Dreze and Sen, 2002). 즉 Sen에게 있어 자유는 단순히 A와 B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위한 추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의미의 참여 혹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다. (유성상, 이은혜, 2016) 이러한 자유로서의 토대역량을 결과로서의 기능과 분리하여 볼 때, 단순히 결과에만 집중할 때보다 더 개인화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Sen의 관점에는 늘 비판이 따라오는데, 이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 개인에만 집중하여 사회 구조 및 맥락을 비판하는 데에 취약성이 있다는 점이고, 둘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반박 및 보완을 거치게 되었는데, 다음은 이에 대한 검토이다.

첫째, 토대역량 접근은 사회 구조 및 맥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자유로서의 토대역량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자유로서의 토대역량을 침해하는 제약 조건의 인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이기도 하다. Robeyns는 토대역량 접근에 가해진 비판에 대하여, 토대역량 접근이 채택하고 있는 '윤리적 개인주의(ethical individualism)'는 모든 사회 현상을 개인에 환원시켜 생각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다르다고 지적한다. (Robeyns, 2005) 즉 토대역량 접근은 사회 현상이 각 개인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을 도덕적 고려의 단위로 삼는 접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토대역량 접근은 집단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 정책에 적용이 가능하며, 한 개인에게 지워

지는 사회적, 환경적 제약 조건을 인지한다.

이러한 인지의 결과가 바로 ‘맥락(context)’ 혹은 ‘전환 요소 (conversion factors)’라고 불리는 요소이다. 사회 구조와 정책, 그리고 환경은 한 개인의 토대역량 목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 및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안전한 환경에 살고 있는 개인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외출 시에 더 큰 토대역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beyns, 2005) 또한 Sen은 이러한 사회 구조와 정책은 토대역량과 분리된 영역으로써, 별도로 자유와 정의가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도 말하였다. (Sen, 2002a, 2004a: Robeyns 2005에서 재인용) 즉 맥락 혹은 전환 요소는 토대역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별도의 제약으로써도, 혹은 강화의 요소로써도 존재할 수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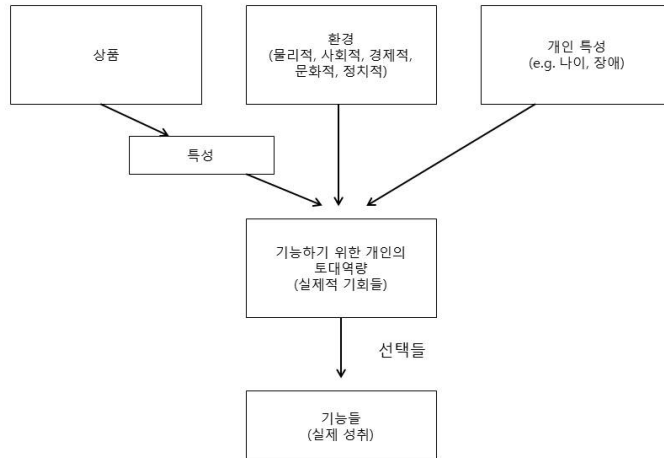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의 토대역량 목록과
그녀의 사회적, 개인적 맥락의 비동적으로 양식화된 묘사
(자료: Robeyns (2005), 연구자 번역)

[그림 1]은 Robeyns가 정리한 토대역량의 매커니즘으로, 한 개인의 토

대역량이 기능으로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식은 재화(commodities)⁷⁾에서부터 시작하는데, Sen은 재화가 기능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인 및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Sen, 1985; 1999) Robeyns(2005)는 이것을 전환 요소라고 불렀으며, 이 요소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전환 요소(생체 활동, 신체 조건, 성, 읽기 능력, 지능), 사회적 전환 요소(공공 정책, 사회 규범, 차별적 관습, 젠더 역할, 사회 계층, 권력 관계)와 환경적 전환 요소(기후, 지리적 위치)는 모두 한 개인이 재화를 기능으로 변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전환 요소들이다. (Robeyns, 2005) 전환 요소의 존재는 토대역량 접근이 한 개인의 자유를 살펴봄에 있어 단지 개인적인 특성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화만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이 신체적 장애를 보유하고 있거나(개인적 전환 요소),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 사는 여성이거나(사회적 전환 요소), 자전거 도로가 없는 지역에 산다면(환경적 전환 요소), 그 반대의 경우보다 최종적으로 자전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기능이 적을 것이다. 위 Robeyns의 도식에 따르면 사회 제도, 사회적 및 법적 규범, 타인의 행동 및 특징, 환경적 요소들 등의 사회적 맥락이 개인적 전환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여기에서 재화는 목표가 아닌, 접근하여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means)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로서만 이해된다. 이들은 고유한 특성(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은 토대역량을 사용하여 이들의 특성을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전거를 원하는 것은 자전거라는 물체가 가진 형태 때문이 아니며, 걸을 때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며, 가령 건강한 신체라는 토대역량을 지닌 사람은 자전거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Sen은 이들은 단순히 수입 혹은 돈으로 치환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이 안에 배태된 특성(characteristic)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Robeyns, 2005) 또한 재화는 재화를 보유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Sen, 1985; Clark, 2005a에서 재인용)



[그림 2] 장애 연구에서 토대역량접근의 접목
(자료: Mitra(2006), 연구자 번역)

Robeyns(2005) 이후로 전환 요소가 작용하는 방식 및 위계는 토대역량 접근을 사용하는 각기 다른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재구성하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림 2는 장애를 연구한 Mitra(2006)의 도식으로, 장애 모델과 토대역량접근을 접목한 것이다. Robeyns가 정리하였지만 정확히 도식에 포함시키지 않은 개인적 전환 요소, 사회적 전환 요소, 환경적 전환 요소가 여기에서는 환경과 개인적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은 재화와 동일한 차원에서 동시에 토대역량으로 연결되도록 도식화되어 있다. 즉 재화, 개인적 특성과 환경은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토대역량의 결여를 일으키고 있다. (Mitra, 2006) 이처럼 각기 다른 연구자들은 맥락 혹은 전환 요소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연구 대상이 처한 맥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둘째,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토대역량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는 Sen이 의도적으로 토대역량 접근을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en은

토대역량 접근의 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목록이나 도식은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Sen은 토대역량 접근이 이용되는 각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가 처한 사회, 문화, 지리적 맥락에 맞게 각기 다른 토대역량 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en, 2005) 이러한 거부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마주한 맥락에서 토대역량이 이해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Alkire, 2005) 설령 각기 다른 맥락에서 수행된 두 연구가 같은 내용의 토대역량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고 하여도, 두 목록은 각기 그것들을 탄생시킨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 고유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Robeyns, 2003)

그러나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역량의 목록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 및 비판이 제기되었고(Alkire, 1997, 2005; Nussbaum, 1995; Robeyns, 2005), 이러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각기 이하와 같은 목록을 작성하였다. Alkire and Black과 Nussbaum가 목록을 작성한 목표는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며,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뛰어넘는 좋은 삶의 기본적 요소들을 나열하고자 하였다. (Alkire and Black, 1997; Nussbaum, 1995; Robeyns, 2005에서 재인용)

	Alkire and Black (1997)	Nussbaum (1995, 2000, 2003)	Robeyns (2005)
목표·범위	보편	보편	서구 사회의 젠더 불평등
추상화 정도	높음	높음	낮음
요소들	1. 생명 2. 지식과 미의식	1. 생명 2. 신체 건강	1. 생명과 신체 건강 2. 정신적 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일과 유희 4. 우정 5. 자기 보전 6. 일관성 있는 자기 결정 7. 초월 8. 인간 이외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신체 보전 4. 감각, 상상, 사고 5. 감정 6. 실천이성 7. 관계 8. 인간 이외의 중 9. 놀이 10. 환경 통제(정치, 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신체 보전과 안전 4. 사회적 관계 5. 정치적 역량강화 6. 교육과 지식 7. 가사일과 노동시 장에서 벗어난 돌 봄 8. 유급 노동과 기타 프로젝트 9. 컴퓨터와 환경 10. 모빌리티 11. 여가 활동 12. 시간-자율성 13. 존중 14. 종교
--	--	---	--

[표 2] 토대역량의 목록 종합
(Robeyns (2005), 연구자 번역)

토대역량 접근이 지나치게 개인화된 맥락에 집중하여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렇게 보편화된 목록은 후속 연구들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처음 토대역량 접근을 고안한 Sen의 자유 확장에 대한 관점은 널리 받아들여져, UNDP의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 1990-2004)에서 그가 제안한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제 4 절 선행 연구 비판 및 분석의 틀 제시

1. 선행 연구 비판

Urry의 이론은 다소 거시적이며 모호하여, 실제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의 개념은 현재 세계에 대해 전체주의적이고 단일한 묘사를 지향하기보다는, 새로운 질문, 이론, 방법론들의

움을 제시하는 것에 가깝다고 (Sheller and Urry, 2006)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Urry는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각 이동들의 양태에 대하여 정확히 규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여러 이동 간의 상호의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국내 연구 동향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는 ‘모빌리티스’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명시한 것은 최근 윤신희 (2015) 및 윤신희·노시학 (2015, 2016)의 연구뿐이다.⁸⁾

또한 Urry의 논의는 권리로서의 이동을 정식화시키지 않았다는 취약점이 있다. Urry는 ‘네트워크 자본’의 보유량에 따라 개인이 계층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네트워크 자본이 일반화된 이동의 권리를 위하여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논설하였다. 또한 그는 네트워크 자본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거시적 차원에서 ‘공현존(co-presence)’이 쇠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저하되며 사회적 자본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Urry, 2007/2014) 그러나 네트워크 자본의 불균등한 분배라는 문제가 이동의 정의와 권리 보장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야기함에도, Urry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술한 두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모빌리티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지리적 제약에 갇힌 결혼이민여성들이 제약에 대응하여 시도하는 여러 이동들의 상호 의존성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함이다. Urry 이론의 강점은 점차 확장되는 모빌리티 시스템들에 따른 새로운 이동의 형태, 그 중에서도 사물 이동과 가상 이동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변화된 이동을 분석틀에 포함시킴으로서 상상 이동·가상 이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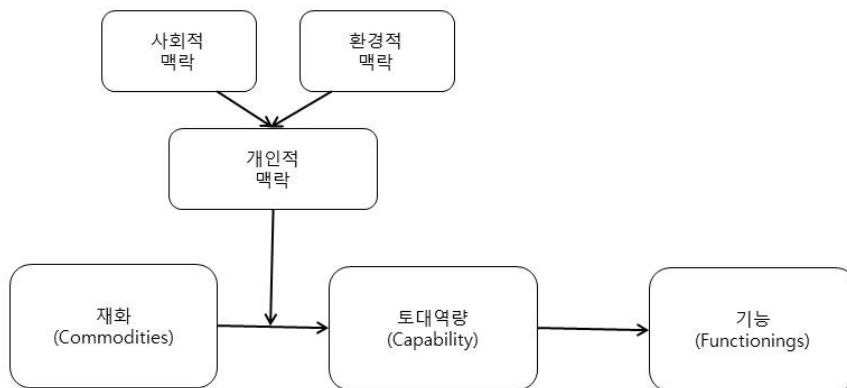
8)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물리적 이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이동’과 ‘이동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Urry의 뉴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동성(mobility)’ 혹은 국내에 처음 번역된 대로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채용되고 있다. (이유신, 2017) 교통 연구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사람 혹은 사물의 이동을 뜻하는 ‘교통’ 혹은 ‘물류’가 주로 사용된다. 미시 스케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주분리와 일상적 필요로 인해 발생하는 ‘통근’ 및 ‘통행’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라 통계청은 가구통행 실태조사에서 ‘통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생활시간조사를 통하여 행동분류에 따른 ‘이동’을 측정하고 있다.

이동이 보편화된 한국 사회에 진입한 결혼이민여성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두 번째 비판을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토대역량으로써의 모빌리티스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 첫째, 토대역량으로써의 모빌리티스 접근은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논함으로써 권리로서의 이동이라는 명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둘째, 토대역량으로써의 모빌리티스 접근은 거시적 차원의 모빌리티스 시스템을 주로 논하였던 모빌리티스 이론의 요소들을 미시적 차원의 개인에게도 적용하기 쉽게 만든다. 이는 후술할 분석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2.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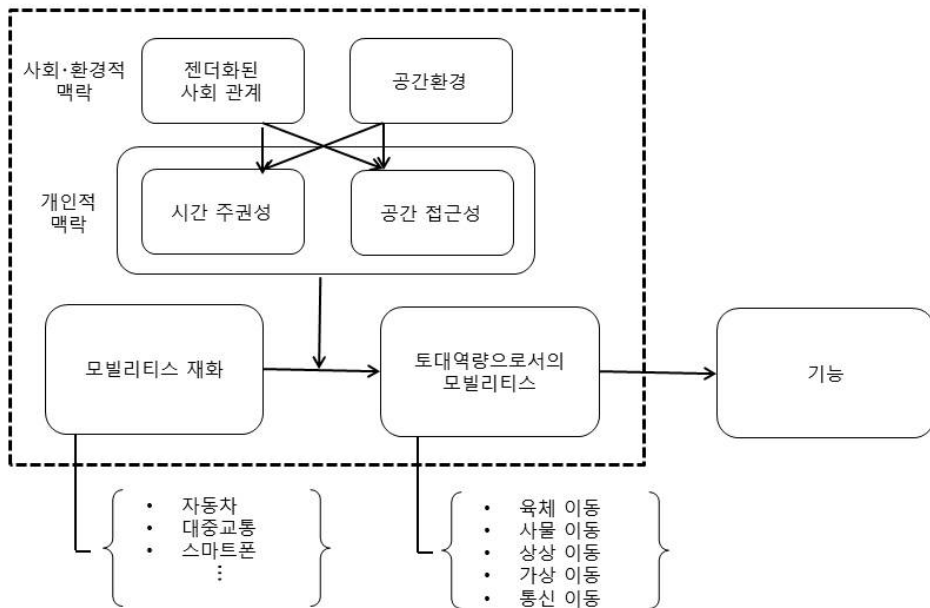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기존 토대역량 접근의 분석틀에 Urry의 모빌리티스 개념을 접목시킴으로 하여 완성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주시 결혼이민여성 연구를 위한 토대역량으로써의 모빌리티스를 정의하고자 하고자 한다.



[그림 3] 연구자가 재구성한 토대역량 접근의 도식

[그림 3]은 연구자가 재구성한 토대역량 접근의 도식으로써, 재화는 토

대역량으로 이행하고, 토대역량은 개인의 선택을 통해 기능으로 이행한다. 재화가 토대역량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제약 혹은 강화의 매커니즘이 개입하게 된다. 이 매커니즘의 제 1층위는 사회·환경적 맥락으로서, 예를 들어 사회적 맥락에는 사회 문화, 제도, 젠더화된 사회 관계가, 환경적 맥락에는 공간 환경, 기후와 토지 등이 포함된다.⁹⁾ 이것이 제 2층위에서 개인적 맥락으로 변환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요소들에 따라 스스로 이를 제약 혹은 강화로 느끼는가의 여부와 그 정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여성 두 명이 여성 혼자서는 집밖에 나갈 수 없다는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여타 조건이 같을 때 이 제도를 안전과 보호로 해석하는지, 혹은 답답한 구속으로 받아들이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는 개인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림 4] 공주시 결혼이민여성들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가 작동하는 매커니즘

9) 선행 연구에서는 ‘전환 요소’와 ‘맥락’을 혼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맥락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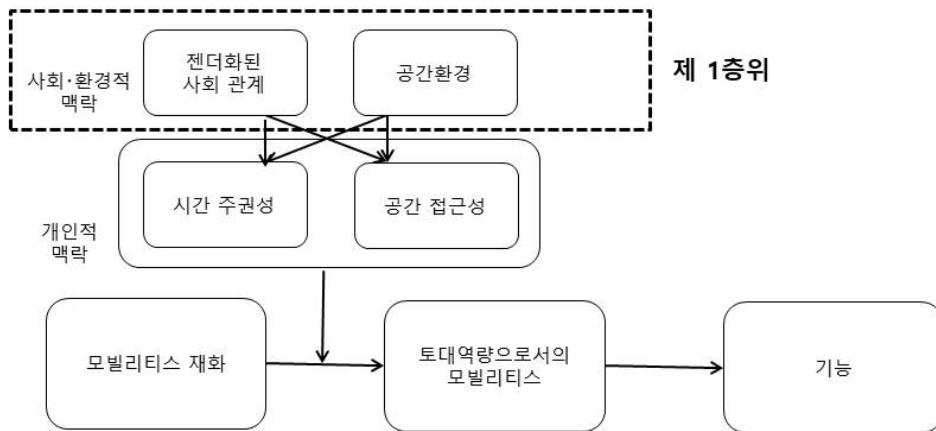
[그림 4]는 본 연구의 분석틀로, 토대역량 접근에 모빌리티스 이론의 요소들을 접목한 것이다. 이 분석틀을 통해 대답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맥락이 공주시 결혼이민여성들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이다. 또한 부과된 제약을 돌파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인 기능을 성취하고 있는 사례들의 해석을 통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는 [그림 4]에 명기된 5가지 형태의 이동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동을 토대역량으로 본 선행 연구는 적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토대역량 매커니즘 상에서 이동을 어떤 위치에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토대역량을 이동 (Kronlid, 2008, Robeyns, 2003), 국제 이주·일상적 이동 (Shin, 2011)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beyns(2003)의 분류를 따라 이동을 토대역량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Urry의 5가지 형태의 모빌리티스를 토대역량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모빌리티스를 기능이 아닌 토대역량으로 설정한 것은, 중요한 것이 이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이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빌리티스 재화는 Urry가 모빌리티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로써 주목하였던 주요 재화들을 일컫으며, 여기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스마트폰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환경적 요소에 포함된 ‘젠더화된 사회 관계’는 Connell(1987)의 정의를 따르며,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에 영향을 받는 성별화된 노동 분업과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 사회적 관계, 사적 관계를 총칭하는 말이다. (Connell, 1987: Giddens, 2009/2011에서 재인용) 공간 환경은 대상자들이 주거, 이동, 방문하는 일상의 공간과 그 환경을 일컫는 말이다. 시간 주권성은 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풍부한 시간 자원 및 주체성이 있는가를, 공간 접근성은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교통 수단, 도

로)으로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대상자들의 행위를 해석하는 데에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하는 행동분류표 및 연계표 상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를 적용한 분석들은 거시적 차원을 주로 다룬 Urry 이론을 미시적 차원과 연결시켜 공주시 결혼이민여성의 모빌리티스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였다.

제 3 장 모빌리티스 제약 제 1 층위 : 사회·환경적 맥락



[그림 5] 모빌리티스 제약의 제1층위

본 장에서는 모빌리티스 제약의 제 1층위인 사회·환경적 맥락을 설명한다. 제 1층위에는 젠더화된 사회 관계와 공간 환경이 위치한다. 젠더화된 사회 관계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있어 모빌리티스 제약을 야기하는 사회적 맥락의 대표적 요소이다. 모성 실천, 구속과 감금, 어머니역할의 실천, 가사 노동이 이에 포함된다. 공간 환경은 환경적 맥락의 대표적 요소이다. 지방도의 형태, 이륜차 도로의 부재, 제한된 버스 시간, 계절과 농번기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환경적 맥락은 제 2층위로 내려와 개인적 맥락으로 전환되며, 각기 시간 주권성과 공간 접근성에 영향을 끼친다. 본 장의 각 절들은 결과적으로 제 2층위에서 야기하는 결과, 즉 시간 주권성을 제약하게 되는지 혹은 공간 접근성을 제약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졌다.

제 1 절 공간 접근성 제약

1. 공간 환경

(1) 지방도의 형태

인터뷰 결과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결혼 이후 처음 오게 된 공주시의 공간 환경에 대해 낯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본인이 살던 출신국의 환경에 비해서 처음에는 '어딜 봐도 산밖에 없었다 (대상자 F)'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대상자 V)', '할머니 할아버지뿐이었다 (대상자 W)'라고 표현하는 등 공주시 읍면부 특유의 산으로 둘러싸인 임야와 마을, 인구 형태가 낯설고 충격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국은 이렇구나 (대상자 W)' '지내 보니까 알았어요 (대상자 F)' 라고 응답하는 등 차차 적응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소 3년부터 최대 19년을 살아온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공간 환경은 단순히 적응의 어려움이 아닌 이동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중 교통이 발달한 도시의 특성을 지닌 공주시의 동부보다는, 읍면부에 사는 여성들에게서 이동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이는 마을을 벗어나려면 통과해야 하는 지방도의 형태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공주시의 읍면부는 대부분 산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중심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기 거리를 두고 떨어진 집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중심지에는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은행, 마트, 작은 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부들의 가정 관리 활동 중 장보기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보 이동으로도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를 넘어서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통해서 옆 마을이나 공주시내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마을 사이를 잇는 지방도를 통해서 가야 한다. 그러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 제약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았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부 거주 여성들이 '차

가 많아요(대상자 E)' '처음에 좀 운전할 때 긴장해요(대상자 J)' 등 주로 시내의 복잡한 도로 사정에 대한 걱정과 첫 운전에 대한 긴장감을 표현하였다면, 읍면부 거주 여성들은 지방도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그냥 동네는 (시장이) 없잖아요. 네. 그냥 동네만. 심심할 때 그냥 노는 거만. (시장은) 멀으니까. 타면 좀 무섭고. 왜냐면 차 많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어우 저는 무섭고…. 네. 큰 도로를 타고 나와야 시장 가니까요. 네 시장 위험해요. (W, 읍면부 거주)

근데 저는 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겨울 때는 면허증 따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겨울 때는 미끄러우니까 또 있다가 하자. 또 있다가. 그냥 뒀어요. (웃음) 그냥..음.. 좀 오래 갈 때는 좀 편리하고 애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뒀는데 탄 후에는 겁이 많아서.. 솔직히 운전 하는거 어…진짜 잘 해야 돼요. 저는 그 국도에 차가 지나가는 거. 빨리 가는거. 저는 그거 무서워요. 또 유턴 할 때. 그거 무서워요. 차가 너무 많아서 빨리 지나갈 때는 거북이 속도로. (웃음) (T, 읍면부 거주)

무서워요. 차가 많아요. [연구자: 라오스에서는 차 많아요?] 차 많지. 우리나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또 보면 너무 무서워요. 여기 인터넷 나와 사고 나면 이런거. 그런 것도 또 보니까. 이제 못 탈 것 같아요. [연구자: 아 여기 XX면은 외국 같아서 좀 더 무서워요?] 네 그런거 있어요. (K, 읍면부 거주)

연구자가 직접 이들이 거주하는 읍면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도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읍면부 거주민들과 면담하였을 때, 이들은 모두 도로 환경이 숙련된 운전자라면 어려움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거리와 제한 속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은 한적한 읍면부 도로 환경이 아닌, 화물 트럭이 오가고 차들의 속도가 빠른 지방도 운전을 부담스러워하였으며, 사고가 났을 때 후처리가 두렵다는 응답도 확인되었다. 이 여성들은 대개 지방도로 나가지 않고 읍면부의 도로에서만 운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시켰기에 이동의 범위가 좁았다. 또한 자

차가 아닌 가족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지방도로 운전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다.

(2) 이륜차 도로의 부재

이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이 지방도 운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반응이었다. 공주시 결혼이민여성들 중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은 대부분 출신국에서 이른 나이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등하교 및 출퇴근의 이동 필요를 충족하였다고 응답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여성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두 명뿐이었으며, 그것도 읍내의 짧은 거리를 오가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주시 경찰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은 거의 이륜 오토바이를 엄청 잘 운전을 해요.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이륜차 시험을 봤었어요. 기능도 여기서 다했는데 전부 눈감고 타실 정도로 S자곡선, 지그재그, 합성 지르고 막. 필기가 어려운 거지 기능은 곡예사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초창기에, 2008년도에 (오토바이 면허를) 되게 많이 따셨어요. 근데 점점 오토바이는 안 타고 자동차로 넘어갔어요. 그때가 아마 2008년-10년이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거의 캄보디아 베트남 분들이 오토바이 신청 많이 했어요.

오토바이는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50cc미만 같은 경우에는 교내나 시장이나 가까운 시내 사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거지 오토바이라는 것이 장거리 개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지 않나. 그분들이 사는 곳에서 시내까지는 오토바이 거리도 아니고 또 위험하고. 그걸 깨달으신 것인지 이제 오토바이 탄다는 분들은 없어요. (경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서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오토바이 숙련 운전자이지만, 면허 취득 희망자는 점점 줄어들어 현재 한국 오토바이 면허 취득자는 매우 소수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시 읍면부 거주 여성들의 응답과 동부 거주 여성들의 응답에서 차이가 있어, 공간 환경이 다시 중층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부 거주 여성들은 주로 오토바이 도로의 부재와 남편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었던 반면 읍면부 거주 여성들은 여기에 더하여 도로, 즉 지방도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

우리 신랑이 오토바이 안 사주드라. 여기는 위험하다구.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안 타지. 오토바이 길이 없더라구. (A, 동부 거주)

타고 싶어요. 그것 좀 편해요. 하지만 길 없어서 위험해요. 우리 신랑도 아! 타지마! 위험해요. (E, 동부 거주)

우리 집에 오토바이 있어요. 그냥 여기 동네만. 남편은 면허 있었는데 저는 없어. 근데 어디만 갔다 오는데 식당하고 우리 집에만 갔다 온다고 밭에만 가요. 그건 그냥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저는 그냥 오토바이 여기까지는 (시내) 안 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도 타지 말라고 하고 (O, 읍면부 거주)

그냥 혼자 동네에서 조금씩 조금씩 타니까. 시내 안 나가니까. 시내 안 되고 왜냐면 보통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남편은 “안 돼요. 그냥 동네만 타요.” 그냥 동네만. 심심할 때 타고. 그렇게 했었어. 그냥.. 동네.. 주위에.. 이렇게 애들이랑 가고 싶었으니까 조금 태워주고. 가까이만요. 그냥.. 가끔 동네 언니 집도 가고. 늘 그렇게. (W, 읍면부 거주)

동부 거주 여성들과 읍면부 거주 여성들 모두 오토바이에 대한 남편의

반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 위험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 응답자 본인이 느낀 위험성에 대해서는 동부 거주 여성과 읍면부 거주 여성의 응답에서 차이가 있었다. 동부 거주 여성의 경우 외출이 주로 시내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이들이 지각할 수 있는 공간 환경 상의 제약은 이륜차 도로가 부재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읍면부 거주 여성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지방도를 의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우 시내까지의 거리 및 지방도 환경 상 오토바이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의 오토바이 운전 숙련도는 한국에 와서 발휘될 일이 없어, 이동 수단으로서의 오토바이 또한 이용이 저조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정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유인은 없었으며,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두 여성 또한 원래 집에 있던 남편의 것을 운전하며, 남편의 말을 따라 반드시 마을 안에서만 이동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한국에 온 결혼이민여성들이 이륜차 도로가 따로 없는 공간 환경과, 이에 더하여 지방도라는 제약까지 돌파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 와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여성이 소수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 환경에 대하여 결혼이민여성 자신이 자각한 위험에 더불어, 한국인 가족 성원들이 모두 위험성을 강조할 때 지방도와 이륜차 도로의 부재는 큰 제약으로 다가온다.

2. 젠더화된 사회 관계

(1) 모성 실천

결혼이민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높은 초기 출산율을 기록하며, 이것은 공주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23명의 연구 대상자들 중 20명이 한국에 오자마자 1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적응 초기인 이 시기에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은 대부분 바깥을 더욱 조심스럽게 탐색하게 되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외출을 자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출 및 이동에 있어 이들의 의사보다 우선되는 것은 이들의 몸이며, 정확히는 임신한 몸이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모성(maternity)'¹⁰⁾은 이미 결혼의 암묵적인 계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선형, 2013) 결혼이민비자(F-6)가 보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권은 이들의 모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는 아이를 낳지 못한 이주여성은 모성에 근거한 체류권 보장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임신·출산의 시기가 결혼 초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어머니가 된다. (이선형, 2013) 가족들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빠른 임신을 기대하며, 임신에 대한 일은 공론화되어 센터 직원들, 이웃들, 친척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격려의 대상이 된다. (김지은, 2007) 이렇게 공적인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언어 제약을 차치하고서라도 결혼이민여성이 사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임신 못한 것) 사람들이, 솔직히 가족이 싫어해요 왜냐면 2년 넘었는데. 약을 먹니, 뭐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가족들이. 저도 (임신 못)하고 싶은 것 아는데 다른 사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아쉬운 게 (일)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된다구. 이제 임신 됐으니까. 2년 넘게 기다리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다 기다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그만두라고. 그날 바로. 그래서 그만 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6주 될 때 계속 일하면서 하품 나오더라구요. 계속 하품해요. 그래서 이상한 게 거기서 얘기하더라구요. 너 왜 자꾸 하품 나와? 모르겠어요. 늦게 잤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누이가 와서 얘기하더라구요. 나는 너무 일 좋으니까 생각도 못 한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하더라구요. 가서 테스트해보자구. 진짜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다들 행복해요. 근데 나는... 회사에서 너무 친해져가지구 그 행복 받았는데... (J, 동부 거주)

10) 임신 및 출산과 같은 생물학적 사건과 관련된 몸의 경험으로서의 모성(maternity)을 의미한다. (이선형, 2013)

대상자 10은 임신에 관련하여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10은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공공연히 피임 여부에 대한 의심을 화제에 올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10은 그 원인을 적응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2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곳에서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끼자 바로 임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은 임신을 하자마자 임신한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구들의 요구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래두 이제 첫째가. 병원에서두 우리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겁이 많아요. 분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누이가 자꾸 수술하라고. 왜요? 너는 겁이 많아서 안 된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데 처음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말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알아야 좋은 것 같아요. (J, 동부 거주)

또한 출산에 와서도 대상자 J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10은 자연 분만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몰랐고, 의사와 소통도 어려웠다. 시누이의 판단에 따라 무엇인지 모르고 제왕절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J씨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고, 또 서류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공공재로 취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의심과 감시의 시선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있어서, 임신은 결혼이민여성들을 비로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의 절차가 된다. 여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신은 도망을 가지 않겠다는 증표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감시의 눈길을 느슨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대상자들의 응답 속에

서 임신 전후로 이동성의 자유가 크게 달라졌다는 응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오기 전 공부했어요. 한국어 기초만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거의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안 나갔어요. 어떻게 버스 타는지도 몰랐어요. 임신한 다음에는 나가요. 2016년에 아기 가졌고 그 다음에 여기 백제, 한국 박물관 갔어요. 다문화 센터 팸플릿 봤어요. 그렇게 어디에 다문화 센터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서 공부했어요.

아기 가지고 나니까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 친구 있어요. 아내가 베트남인. 베트남인이 센터 가면 거기서 친구 찾아. 다른 남자 찾아. 이혼했어요. 남편 무서워. 내가 나가면,(내가 나갈까봐) 필리핀인도 그럴까봐. 남편한테 난 베트남인 같지 않다고 말했지만... (C, 동부 거주)

남편 같이 이야기 해 주면, 저는 애기 없으니까 남편도 걱정 하잖아요. 그냥 남편 다 그래요 걱정.애기 없어? 남편 말만 들어 그냥 나가. 다 있어요. [항상 남편하고 나갔어요?] 네네 어디 가면 다 남편 같이. 남편이 "안돼. 너는 (센터에 가서) 공부 못해." 그냥 또 책 하나 주었어. 저는 그냥 답답. 왜 센터 안 가? 근데 저 애기 있어요? 빨라요. 검사 있어도 아침에 검사하고 낮에도 센터 가요. 빨라요. 제가 처음에 와서 애기 없으니까 센터 오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안돼요." 그냥 책 줘요.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몰라요.

[연구자: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때 처음 애기 없으니까 남편 걱정해요... 그냥 애기 있는 전에 그 때 남편은 같이 왔다 같이 와요. (S, 읍면부 거주)

대상자 C는 도망갈 것을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한국에 오고 첫 3년간을 집에만 있었다가,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말한다. 첫 외출에서 우연히 센터의 존재를 알고, 영어로 된 설명을 읽고 어

면 곳인지 알았다고 한다. 대상자 S의 남편 또한 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으나, 센터에는 보내지 않으려 했다. S씨는 결혼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센터의 존재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보내 주지 않으니 갈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절차는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바로 센터에 보내 준 것이다. 임신 전에는 늘 어디든지 동반하던 남편은 임신 후부터 S씨가 혼자서도 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가족들에게 있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습득은 언어습득의 차원 이전에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단체 한국어 교육의 참여는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 즉 가출이나 '나쁜 생각', 즉 취직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불러온다. (김지은, 2007) 이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 거주 초기에 남편들은 방문교육을 신청하는 수고를 감당하거나 소통의 불편을 감수할지언정 센터에 보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과 감시의 눈길에 직면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임신이라는 의례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되는 단계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은 '국민의 배우자'¹¹⁾에서 '국민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결혼이민에 포함된 모성의 계약을 수행함으로써 보여 주어야 한다. 임신 이후에 센터에 나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써 대체로 관대한 눈길로 보아진다. 임신이라는 의례 전후로 센터에 가는 동일한 활동의 의미가 잠재적인 도망의 몸짓에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2) 구속 및 감금

전술하였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 시기부터 조금씩 외출을 하거나, 센터에 가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대답한 반면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11) '국민의 배우자'일 것은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있었다. 이 여성들의 가족들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이들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하여 널리 퍼져 있는 이 '도망' 담론에 결혼이민여성들은 대항할 수단이 없으며,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한국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혼자 외출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으며, 늘 가족의 일원이 동반한 상태로만 밖에 나갈 수 있었다. 유일하게 외출을 허락받은 것은 센터에서의 한국어 수업을 위해서였지만, 늘 통학길에 감시할 가족을 동반하였다. 또 센터에 와 있을 때도 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시부모 및 남편의 전화에 바로 응답해야 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감시는 이동에 대한 완전한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대상자 F과 O의 경우를 통해 감금 상태에 가까운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대상자 F는 현재 재혼 상태로, 약 2년 간의 결혼 생활을 지속한 전 남편과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다. 당시에는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결혼 생활 동안 외출은 전혀 없었다. 유일한 외출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과, 남편이 데려다 놓는 같은 동네의 형님 집이었다. F는 한국말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한 채, 눈치껏 형님네의 가사 노동까지 담당해야 했다. 센터에 가고 싶었지만, 말을 배우면 도망간다는 남편의 주장에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었다.

처음에 왔을 때 신랑이 나가면서 딱 대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일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한테 신랑 혼났어요. 그 때 처음 나갔어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사람이 꼭 집에서 데리고 나와. 아침에 저를 (형님의 집에) 보내고 내가 (형님의) 집에서 청소하고. 형부 형님이 집에 오면 밥 해주고. 같이 밥 먹고 그 밥 먹고 나가고. 집에서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침에 자기가 일 나갈 때 그 형님네 집 데려다 놓고 거기서 청소하고 밥하시고 뭐 자기일 끝나면 데리고 가고?] 네. 그래서 계속 이러면 나 싫었어. 나 집에

있어. 나 계속 그 집에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대로 하니까. 그래서 나 안가고 그냥 집에만 있을 거야. 그냥 나 안 가고.

그때는 처음에 신랑하고 싸웠어요. 나 한국말 배우고 싶다. 나 저 좀 보내주세요. 나 한국말 배워야 돼. 한국말 못 배우게 해요. 왜 그러냐면 너 한국말 다 할 줄 알면 나중에 도망가요. 그래서 집에서 무슨 말 못하잖아요. 한국어 그 책을. 물어보잖아요.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말도 않아요. 하면 나중에 너 말 잘하면 도망갈거야. 그래서 못하게. 그랬었어요. 그냥 너 지금은 무조건 말 못해야 해. 하면 나중에 할 줄 알면 도망가. 그래서요. (F. 읍면부→동부 거주)

F씨는 센터로의 외출은 허락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갈등은 고조되었다. 가정 폭력을 신고해 준 것은 이웃 할머니였다. F씨는 쉼터를 전전하였지만 남편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가 조정에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F씨는 이혼을 하였다. 비자가 만료될 즈음에 F씨가 일하던 식당에 다니던 단골 손님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했고, F씨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 재혼한 남편과는 9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9살 난 아들도 있다. 그러나 남편과 재혼하고, 동부의 변화한 시내로 생활 터전을 옮기고 나서도 F씨는 9년째 혼자 외출하는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혼한 F씨의 남편은 시간 유용이 자유로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디든 F씨를 데려다 준다. F씨의 유일한 외출인 센터에도 데려다 주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후 데리러 온다. 이에 따라 F씨는 9년 동안 시내버스를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다.

[연구자: 센터에 혼자 오세요?] 아니에요 우리 신랑 가스 배달하니까 일이 없으면 저 좀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버스 탈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버스 타고 여기서까지 오는 거. 그거 전혀 몰라요. [연구자: 버스 한 번도 안 타 보셨어요?] 예 (목소리 높이며) 안 타봤어요. [연구자: 한 번도요?] 예. 왜냐하면 신랑 가스 차니까 그냥 그 차 타구 가다 보니까 밖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밖에 안 나가구. 그냥 가끔 장 보거나. 뭐뭐. 채소 뭐 사고. 요새 좀 나오는 거
에요 요번에. 작년에 거기(시장)도 안 가봤어요 저. 모두 다 신랑 사오구 집에
서. 해고 먹고. 뭐 필요하면 얘기하구 그냥 (신랑이) 사오구. 밖에 안 나갔어요.
(F, 읍면부→동부 거주)

이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된 대상자 O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는 한국어가 유창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지만 한 번도 혼
자 외출한 적이 없다. O씨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시내버스도 혼자 탈
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O씨의 옆에는 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시누이
나 남편이 동반하고, 센터 수업에도 항상 시부모님이 동반하여 등교한다.
특히 시아버지가 남편 대신 O씨의 감시역을 자처하는 편이다. O씨의 시
아버지는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O씨에게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외출) 잘 안 해. 근데 아버님 어디 가면은 같이 나가는데..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구자: 센터에는 항상 시아버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계속
다녀요 어떻게 남편은 바쁘니까. 그때는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줘서.

[연구자: 어머니가 항상 같이 외출하세요?] 어머니는 맨날 같이 있었지.(웃음)
혼자는 안했어요. [연구자: 친구가 오는 건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연구자:
가는 건 안돼요?] 그렇게는 안 보내. 안 보내준다구. **(O, 읍면부 거주)**

이렇게 구속 및 감금에 가까운 환경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이동은 심
각하게 제약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 공주시 경찰 관계자
는 체포에 빚대어 이야기하였다.

그거는 이야기한대로 제한된 이동이죠. 내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헌법상에는 체포와 감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동할 수 있어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나, 등 뒤에 총을 대고 있거나 하면 내가 움직일 순 있죠. 하지만 내가 다른 행동은 못하는 거죠. 그건 이동이 아니라 체포 감금이라고 해요.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저희끼리는.

과잉 애정. 우리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얘기할 수 없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의처증이라고 우리는 단숨에 얘기를 해버리겠어요. (경찰 관계자)

이러한 대상자 F와 O의 경우는 공주시에서 흔한 일이기도 하다. 연구자의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도 초혼 때의 F씨처럼 아예 감금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거나, O씨처럼 모든 이동에 가족이 동반하거나, 재혼 때의 F씨처럼 어디에든 데려다 주는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발견되었다.

이상 본 절에서는 공간 주권성이 공간 환경과 젠더화된 사회 관계로 인해 어떻게 제약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시간 주권성이 공간 환경과 젠더화된 사회 관계로 인해 어떻게 제약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제 2 절 시간 주권성 제약

1. 공간 환경

(1) 제한된 버스 운행 시간

지하철이 없는 공주시에서 시내버스는 동부와 읍면부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모두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다. 그러나 동부와 읍면부 거주 여성들에게 버스가 갖는 의미는 차이가 있었다. '배차 간격'과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은 동부와 읍면부 거주 여성들의 인터뷰에서 모두 등장하였지만, 읍면부 거주 여성들은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만을 더욱 강조하

였으며,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집이 멀다'는 이야기와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이는 운전이 친숙하지 않고, 신랑 및 주변 사람들의 차를 동원할 여력이 없는 읍면부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버스가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읍면부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과 인터뷰를 할 때 공간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 시내버스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으며 몇몇 여성들이 연구자에게 '선생님이 위에다 말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등 그 개선의 필요도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냥 우리 집에는 버스 기다릴 때는 가깝지 않아서. 좀 걸어와서. 15분 걸어와. 기다려야 하니까.. 애들하고는 이게 여름일 때는 좀 힘들어요. (K, 읍면부 거주)

네 그리고 버스도 못타요 왜냐면. 산 위에 산 꼭대기. 거기서 살으니까. 버스 안 다니고. 택시 불러야해. 택시 부르면 30분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손님 있다고. 늦었다고. 우리 신랑 데려다줄게요... 우리 동네는 버스 안다니요. 이인에 가면 거기. 걸어가면.. 우리집에서부터.. 거기 이인까지는.. 45분 걸려요. 걸어가면 (P, 읍면부 거주)

택시 여기 우리 집이 만 오천원 나와요. 우리 신랑 (운전) 몰라. 오토바이만 알아. 우리 집이 버스 (내리는 곳이) 우리 동네 아녀. 거기 내려 우리집 가면 오천원 사천원 나와 택시. 버스 정류장 여기까지 집에서 걸어가면 5분. 멀어. (Q, 읍면부 거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한 25분 걸려요. 집에서 나와서 그냥. 도로로 나오고. 터미널까지 가는거예요 걸어서. (T, 읍면부 거주)

저 나오는거 제일 어려운 거 차(버스) 없기 때문에. 차 많으면 괜찮은데 차 없으면 힘들어요. 기다려요. 30분, 10분.... 기다려요. 차 때문에. (S, 읍면부 거주)

읍면부 거주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집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응답하였으며, 걸어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리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계산이다. 더하여 처음 타는 버스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다음에 환승할 버스 시간에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은 더 정확해야 했다. 혹여나 버스를 놓치게 된다면, 동원할 수 있는 자차가 없고 요금이 비싼 택시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이들은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계산은 중요하다.

이렇게 읍면부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동에 있어 크게 버스 스케줄과 배차 간격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단지 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짐작하고 있을 뿐 막상 버스 시간 및 배차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며, 이에 관련된 정보에서도 유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가 공주시에서 연구를 하는 동안 있었던 공주 시내버스 노선 일제 개편¹²⁾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개편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공주시의 몇몇 시내버스 노선과 함께 배차 간격 및 시간표가 변동되는 것이었는데,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일이 되어서야 큰 당황과 함께 이를 맞이하였다.

버스. 시간 바뀌. 공주 왔어. 늦게. 하루 세 번. 일곱시. 열시 사십오분. 근데 열한 시 왔어요. 공주 왔어. 많이 기다려. 혼났어. "어딘데!" 바꿨어 시간. 시간 바뀌. 나 몰랐어요. 나 알아 열시 사십분. 지금 열한시 왔어요. 공주 늦게 왔어요. 5월 1일. 바뀌었다. 나 몰라. (Q, 읍면부 거주)

어제.. 지난 주.. 지난 주? 지난 주 화요일 시간. 버스는 공주는 5월 1일부터 시간 버스는 저기 많이 변경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가 오니까 옆에 있는 그 어떤 대학생이.. 그 환승 할 때는.. 그거 원래는 그때는 3시 넘어서 차가 올 수 있는데.. 지난주도 저기 석장리 갈 때. 석장리 갈 때 시간버스 그 시간에 와야

12) "공주시, 5월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15% 노선 감축" 백제뉴스, 2019.03.07. <http://www.ebaek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99> 에서 2019.06.05. 추출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와서 이.. 어.. 이 차는 시간을 볼 수 있냐고.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대학생이.. 뭐 뭐 이거 검색했어요. 그리고 시간 다 알려줬어. 그래갖고 “혹시 뭐 이거 어떻게 검색 하는거예요” 하니까 그거(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알려줬어요. 깔으라고. 응 그래서 “오~ 이런거 있네. 나 왜 몰랐죠?” (T, 읍면부 거주)

그때 5월 1일날 부터 바꿨고 근데. 어 바꿨는데. 제 동네는 차 좀 더 늘어났어요. 원래는 6시 차만 있고요. 근데 지금은 6시차도 있고 6시.. 저는 몰라서. 왜냐하면 이 시간에 안탔어요. 근데 그냥 (차가 오는 것을) 봤어요. 집에서 나와서 봐서, 어 차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7시 15분에 또 오고. 그래서 어... 또 오네. 네 아침에 6시 반 첫 차가고.

(바뀐 것을 확신한 것은) 저는 그 때는 베트남 언니가 아는 언니 있는데, 차 타다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저 언니한테 “언니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랬어요 동생”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일 아침에 버스 터미널와서 이거 무슨 쪽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저 어.. 바꿨구나. 저는 사무실에 올라갔어. 무슨 버스 표가 종이 하나 주세요. 그래서 버스 종이 줬어요. 집 가서 보고. 어.. 이 시간 이 시간 그렇게 바꿨구나. 네. [연구자: 그래서 받으셨어요 종이를?] 왜냐면 이거 없으면 더 걱정이잖아. 자꾸 사람들에게 물으면 좀 부담스럽고. 이거 하나 딱 있으면 우리가 보고 또 보고. (W, 읍면부 거주)

5월 1일 이후에 연구자와 인터뷰한 읍면부 거주 여성들은 각기 갑작스러운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대상자 Q는 당일 버스 시간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약속에 지각을 하였으며, 대상자 T와 W 또한 당일에서야 버스가 늦거나 빨리 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T씨는 한국에 산 지 14년이 되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을 즐겨 하지만, 5월 1일 당일에 옆에 있는 대학생이 알려 주는 것을 보고 시내버스 관련 어플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W씨는 버스 시간이 바뀌었겠거니 짐작만 하다가 친구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를 확신했고, 버스 터미널 사무소에서 바뀐 시간표를 얻었다. 버스를 매일 타

고 출퇴근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2) 계절적 요인

동부 거주 여성들의 응답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읍면부 거주 여성들이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계절적 요인이었다. 여름과 겨울의 날씨 변화는 이들로 하여금 제한된 버스 시간의 제약을 극대화시켜, 온도가 가장 높거나 낮은 시간에 외출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또한 겨울은 도로가 얼게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운전을 기피시키고 주로 집에만 있게 만드는 계절이기도 했다. 이렇게 사계절 중 여름과 겨울의 시간 동안 이들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외출이 가능한 시간대 및 일자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고려했으나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포기하였다는 답변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본국에서 주로 이용했던 이동 수단인 오토바이가 한국에서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날씨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면 거주 당시) 거기 버스 게다가 특히 겨울 때. 아기 많이 아팠는데도 버스 많이 기다려. 힘들어. 택시 타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E, 읍면부→동부 거주)

그냥 우리 집에서 버스 기다리는 데는 가깝지 않아서. 좀 걸어와서. 15분 걸어와. 기다려야 하니까.. 애들하고는 이게 여름일 때는 좀 힘들어요. (K, 읍면부 거주)

근데 저 저는 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때는 겨울에 면허증 따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겨울 때는 미끄러우니까 또 있다가 하자. 또 있다가. 그냥 뒀어요. 그러다가 여태까지 (웃음) (T, 읍면부 거주)

똑같은 시골이여도. 사는데 시골이니까. 겨울은 (길이) 어는 게 조금 어려워. 그러면 나갈 때면 뭐.. 뭐라고 하나? 눈이 오면. 얼어서. 나가지도 못해. 어머님이 "운전 하지마.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집에 있어야 돼요. 그냥 방에 있어

아니면 청소하고 있어요. 어머님 옆방에 계시니까. 요즘엔 어머님 계속 집에 계시니까. (P, 읍면부 거주)

차 있으면 더 편하죠. 그렇죠. 겨울에나.. 여름날 타면 덥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겨울에 못 타잖아요. 어우 추워요. 못 타잖아. 차는 겨울에나 여름에나 타면 덥지 않잖아요. (W, 읍면부 거주)

또한 계절의 변화는 각 집에서 진행되는 농번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농번기에 온 가족이 농사일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동원되는 것은 빈번하고도 당연한 일이며, 농번기의 바쁜 일상은 결혼이민여성으로부터 여가 및 기타 시간 사용 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을 빼앗는다.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 관계자 두 명과 연구자가 읍면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이다.

관계자 X: 지금 마을 이렇게 촌 구석구석에 일꾼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네들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주부가 집에서 노는 사람 지금 없어. 집에서 안 내보내는 애는 자기네 집 일을 하든가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남의 집 품을 팔러가든가 그걸 하던가 아니면 공장을 들어가던가.

관계자 Y: 그게 품앗이야 품앗이. 쉽게 말하면.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잖아. 그니까 우리 집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 고추 밭이 있어. 고추 비닐하우스가 있어. 그럼 우리 집 거를 따로 옆집 사람이 와. 그럼 우리도 이 사람이 딸 때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촌에는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품앗이를 하는 거야. 옛날 품앗이처럼. 그래서 그 집에 뭐 무슨 농사 일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딸기도 마찬가지로 딸기도 우리 딸 때 그 집도 딸 때 가서 해 주고 이렇게 서로. 그게 결국 품앗이고 내가 가서 일당 버는 거 하고 똑같은 거야.

연구자: 서로 일당은 주나요, 그렇게 되면?

관계자 X: 아니지 이제 그 집 서로 일을 하니까. 그 사람 같이 내 일을 할 때 하고 내가 그집 일할 때 하니까 일당은 안 주지. 근데 이제 우리 그 애 있잖아요. XX이네 엄마도 비닐하우스를 세 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동 자기 게 끝

나면 딴 집 가서 일을 하고 품을 파는 거지. 품을 파는 거지.

연구자: 그러면 그 며느리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가야 된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관계자 Y: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새마을 부녀회 관계자 X, Y와의 대화에서 발췌)

집에서 가업으로 농사 및 하우스 일을 진행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 해당 작물의 농번기에 동원된다. 그러나 가업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의 집이 작은 규모로 여러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들 작물은 사철 내내 교대로 수확철이 된다. 즉 집에서 키우는 작물에 수시로 일손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자가 방문한 한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집에서도 수시로 가족들이 밖에 나가 작물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는 등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여성 본인도 '가서 물 주고 와라' '반찬거리 좀 뽑아 오너라' 등의 말을 듣고 밭에 나갔다 오는 등 가족의 일원으로서 농사에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읍면 거주 여성들에게 있어 농번기의 바쁜 철, 모든 시간을 농사에 쏟는 일은 매우 혼한 일이었다.

뭐 심고 뭐 심고 심고.. 뭐 심어. 지금은 뭐냐. 고추 심잖아요. 참깨도 심고, 나중에는 콩 심고, 들깨 심고.. 밤 콩. 마늘. 겨울에 마늘. 지금 몇 달 지나면 겨울이잖아요. (O, 읍면부 거주)

밭에 가자고. 풀 베야 된다고 뭐. 그렇게 더워도 계속 하고 있어 너무 더워도. 조금 가다가 너무 더워갖고. 쉬고 싶어도 안돼요. 자고 싶어도. (P, 읍면부 거주)

(읍면 거주 당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모든 것 준비해요. 7시에는 농장 가요. 일해요. 하루 종일. (B, 읍면부→동부 거주)

또한 읍면부 거주 여성들의 경우 농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센터에 가지 못하거나 기타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일상이었다. 대상자 Q는 잠시 공장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나 가업인 딸기 하우스 농사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만뒀야 했으며, 남편과의 결혼을 주선하기도 했던 통일교회 미사도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하우스 딸기철인 5월이 지나면 조금 한가해져서 놀러 나올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대상자 E는 읍면 거주 당시 가업이었던 깻잎 농사를 돕느라 센터에 나올 시간이 없어 한국어 습득이 더뎠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6개월만 여기 탄천 공장 일해요. 그만뒀 6개월만에. 딸기 때문에. 여기 통일교회 일요일 있어요. 일주일 한 번 일요일만. 근데 지금 바빠. 딸기 농사. 딸기 따요. 못 가.

우리 신랑 왜 공주 가? 누구 보러가? 맨날 맨날 오면 안돼. 혼나. "왜 간다고 공주. 여기 일 있으니까 가지 마!" 일 때문에. 그냥 맨날맨날 일해. 지금 딸기 따야지. 신랑 혼자. 나 여기 나간다고 다문화센터 오늘 신랑 화났어. (머리에 빨간 시늬) "왜 늦게 왔어. 왜 빨리빨리 안 와. 여기 일 있어!" 잔소리해. 일 없으면 신랑 괜찮아. 신랑 일 잘해. (Q, 읍면부 거주)

(읍면 거주 당시) 시골에 일 많이 있으니까 못 공부했어요. 시부모님 같이 살아서 그때 다섯 시 일어나서 밥 준비해요. 신랑 먼저 먹구 가서 일해요. 일곱시 시아버님 밥 준비해 주고. 아홉시에 애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먹어요. 아침 먹고 했어요. 깻잎 따요. 아 집 청소해요. 깻잎 따요. 깻잎 박스 만들어요. 하루 계속 깻잎 따요. 오후에 네 시에 와서 애기 혼자 놀아요. 저는 깻잎 또 따요. 다섯 시까지. 아! 점심! 열두시만. 시아버님한테도 밥해줘. 깻잎 계속 했어요 다섯 시까지. 아버님 깻잎 가서 팔아요. 저는 집 청소해요. 애기 음식 조금 해줘요. 다섯 시 반 시어머니 병원에 일해서 오세요. 그때 음식 사와요. 저는 만들어요. 애기도 목욕하고 저녁에 준비해요. 아버님 오시고 여섯 시 일곱 시? 저녁에 같이 먹어요. 시간.. 깻잎 계속 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작년 말 한국어 배웠어요. 시간 없으니까요.

한국어 못해요. 왜냐면 집에 계속 살아요. 밖에 안 가서. 그래서 한국말 못 잘했어요.

[연구자: 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예. 알았어요. 그 때 가끔만 공부해요. 그렇게 시간 없어요. 못 가요. 못 공부했어요. (E, 읍면부→동부 거주)

2. 젠더화된 사회 관계

(1) 어머니역할의 실천

어머니역할(mothering)이란 모성(maternity)와는 구분된 개념으로써, 자녀를 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매일의 노동, 이성적 활동이자 동적인 실천의 차원을 이야기한다. (이선행, 2013) 결혼이민비자(F6)가 아이가 있는 경우 연장 기간을 3년까지 늘려 보장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이민 비자에서 보장하는 결혼이민의 권리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성 및 출산에 대해 맞교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술하였듯이 인터뷰 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 1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며, 2명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무자녀 및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결혼이민여성이 포함된 가정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무관하지 않게,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뷰 중 대상자들은 '엄마니까요(대상자 L)' '엄마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대상자 A)' 등의 책임을 의식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으며, 미래의 계획이나 취업 상황을 물을 때도 늘 빠지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은 실제로 아이와 관련된 실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시간의 제약을 느끼게 하는 주 요인이기도 하였다. 일상적인 외출이나 모임 참석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

답은 ‘육아로 바쁘다’는 것이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이것을 자신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은 아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에 애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준비, 여기 오구, 공부 끝나구 나서 걸어서 음식. 야채. 한국음식. 야채 사고. [연구자: 어디에서 사세요?] 시장에. 공주시장에 가서 사요. 저기 집 시장 근처 살아요. 사고 집에 와서 걸어와요. 야채 사구 고기 사고 집에 가서 요리해요. 오후에 애기 와서 데리고 재워요. 세시, 세시반 애기 와서 좀 공원 집근처 공원 가서 같이 놀아요. 저녁에 음식 준비해요. 신랑 와서 같이 먹어요. [연구자: 센터 끝나고 다른 볼일은 보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세시반 애기 왔어요. 오래 밖에 있어요 못해. **(E, 동부 거주)**

수업이 세시 끝나요. 거기 복지관 공부하면 네시 끝나요. 바로 애기 데리고 집에 와야 돼요. 둘째는 데리고 오고. 첫째는 (학교)버스 타요. (첫째와는) 시간 좀 많이 안 맞아요. (둘째는) 또 가까워요. 그냥 데리러 가요. **(G, 동부 거주)**

그리고 애기는 또 어린이집에 다녀. 아침에 열시부터 그냥 오후에 세시 시간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다른 일 못해요. 그래서 가끔 아르바이트 하구 용돈 조금 벌어요. **(H, 동부 거주)**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러시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만나고 모임도 하고 해요 근데 공주에서 얼마 안 돼요 한 두세명 정도?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남도 자주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집 아니면 애들 학교 보내구. **(J, 동부 거주)**

애가 내년엔 초등학교 가요. 그래도 학원 보내야 돼, 뭐 해야돼, 저도 똑같이 데려와야 돼, 데려가야 돼. (스쿨 버스) 여기 너무 멀어서 안 해줘요. 다 안 해줘요. 시내에 다 해주는데 여기까지 안 해 준대. 항상 저 혼자 아침에 데려 가고. 저 출근 하고. 퇴근하고 나면 유치원 가서 데려 가고.. (초등학교 가도) 시간 많아지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도 데려가야 돼, 저는 또 바빠. 그냥 이렇게 낮에 마치고나면 저 학원.. 학원 어디든 데려 가야 되잖아 집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바쁠 것 같아요. (R. 읍면부 거주)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대상자들의 일과는 아이의 통학 시간을 기점으로 정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준비시켜 스쿨버스로 등원시키고, 아이가 하원할 때는 반드시 집에 있다가 아이를 맞아 준 후 밤까지 다시 공부시키기, 놀아주기 등 돌봄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나 다른 양육자가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아이의 등원 및 하원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시각을 지켜 주중의 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외출 등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은 모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그나마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맡아 주지 못하는 경우 실행되기 못했다. 때문에 연구자가 참여한 센터 한국어 수업의 경우에도 참석자들의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해 결석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잦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을 활용해 센터에 온 여성들도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이의 하원을 맞이하기 위해 집으로 가야 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휴업하는 휴일을 통해 다른 변수를 제거하고, 어머니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모빌리티스 제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대체로 외출 목적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며, 아이를 대신 맡아 줄 보조 양육자도 없다. 휴일의 외출 빈도, 목적지의 다양성, 동반하는 사람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어떻게 전담으로 주어진 어머니역할을 수행해 내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은 대상자 F와 R의 휴일 외출에 대한 응답이다. 이들은 똑같이 중국 출신으로 한국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비슷하며, 한국에 귀화하였다. 둘 다 아이를 위해 학습지를 구독하거나 학원을 등록시킬 정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휴일에) 그래도 신랑 그냥 혼자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것, 낚시 있잖아요. 낚

시. 물고기 잡는 것 그것 좋아해 가지고. 우리 아들, 저랑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 뭐 놀 데 있으면 가고 좋은데, 그런데 우리 신랑은 낚시 좋아해 가지구 못 데리구 가요. 우리는 또 가만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휴대폰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면 아들은 이것 (핸드폰) 안 보고 "밖에 어디 재미있어요, 엄마. 어디 토요일 일요일만 데리고 가요, 저도 같이 놀아요." 그러면 좋은데 근데 아들도 그런 거 안 가보니까 모르구. 그래 저도 못 갔구. 그래서. 네 신랑 혼자 좋아하는 것은 그냥 혼자 가서 하구. 우리 ○○이랑 엄마랑 그냥 집에 있구. (F, 읍면부→동부 거주)

(휴일에) 애기 친구도 없고 맨날 집에서만 있으면 안돼요. 데려 나와서 친구도 만나하고 놀아야 돼. 애 친구 없어놓으면 학교 다니면 힘들어요. 어디 다 돌아 다녀요. 여기.. ○○월드. 세종시. 다 가요. 여기(공주시)도 뭐 놀 거 있으면 다 가요. 놀 거 있으면 저 어쨌든 얼마나 힘들어도 데려가서 나가요. 놀아줘요. 왜냐면 저도 주말만 쉬어요. 주중엔 다 출근해야 되니까. 주말만 쉬고 애 데려가서 놀고. 애기.. 친구도 만나야 돼. 다른 친구 만나서 배울 것도 많아. 왜냐면 저 중국 엄마니까. 한국말 제대로 많이 못하잖아요. 다른 친구, 한국 친구 애기들 만나서 놀면 재들이 말도 배워 하고 뭐 여기 교육 이런 거 뭐가 있나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많이 배울 수 없어요 전. 같이 있으면.

(육아와 집안일에)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뭐 이렇게 남편은 시간도 없어. 매일 매일 그냥 일요일 날도 우리 남편 어디 가자고 하면 "싫어." 그냥 말 많이 없어 남편. 그냥 주위에 뭐 산 이런 게 좋아. 맨날 저 혼자만 애기 데리고 가서 놀고 뭐 하고.안 해. 남편 아무것도 안 도와줘. 아무것도 안 도와줘. 애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감기 걸리든지 입원 하든지 저 혼자만이야. 병원 데려가고 데려오고 입원해서 병원서 3-4일 있어도 퇴원하고 집에 와고 다 저 혼자였어요. 뭐 하나면 시어머니도 "아들 뭐 맨날 일인데 일요일날만 쉬는데 얼마나 대견하는데!" 아니 아들 대견하는데 나는? (한숨). (R, 읍면부 거주)

이상의 응답을 통해 두 여성 모두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아이와의 휴일 외출을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평소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대상자 F는 남편의 협조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 없고,

집에 있어 아이가 암전한 것 같다며 자신의 어머니역할 수행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R씨는 피곤한 스케줄 가운데 어머니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R씨는 매일 공장에 출근하고, 동시에 메신저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내지만 휴일에는 꼭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외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육아와 집안일에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라고 호소했지만, '놀 거 있으면 저 어쨌든 얼마나 힘들어도 데려가서 나가요.'라고 발언하며 자신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2) 가사 노동

연구 대상자들은 가정에서 대부분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이나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임신 중이거나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었다. 이렇게 연구 대상자들이 일상에서 주로 시간을 할애하는 가사 노동은 집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외출 및 타 장소로의 이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학교 보내지구, 그냥 버스 있어요 타구 하면 집안일 좀 하구 아마 열시 열한시 그 시간 끝나는 거예요. 설거지 하구 빨래 돌리구 방 좀 청소하구 다른 것두 뭐 있잖아요 그거 또 하구 그럼 그 시간 돼요. 금방 가.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이야. 그 오후에 시간에 그냥. 아들 오기 전에 그 시간 여유분 있는 거예요. (F, 읍면부→동부 거주)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고 아홉시 쯤에 집에서 뭐 밥 먹고 애기는 어린이집이 그냥 아파트 밑에 있어요. 가까우니까 걸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또 여기 학교 한국어 공부 왔어요. 공부 끝나면 그냥 친구랑 같이 뭐 가끔 친구도 만나요. 아니면 친구 안 만나면 그냥 집에 가서 청소하고 집안일 하고 저녁 밥도 준비하고. 네 시쯤에 또 애기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고 밖에 한 시간쯤 놀고 다섯 시쯤에 집에 와서 밥 먹구 그래요. 남편은 요새 (일이 없어서) 집에 있어요. 아

그런데 남편이 많이 도와 못 줘요. 설거지 해요. 설거지만. 휴대폰 놓고. (H, 읍면부 거주)

그러니 어떻게 나가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쉬어야 돼요. 근데 항상 저 금요일날 밤에 집에 와서 빨리 빨래하고 (토요일) 아침에 그냥 다 말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집에 청소 다 끝나서, 아 오후 시간에는 애기 (밖으로) 데려와서 "여기 와서 놀아"하고 "저기 친구 만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남편 쉬면 시간 있으면 같이 나와서 조금 놀다가 밥 먹고 집에 들어가.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평일 날엔 집에 가서 밥 하고 밥 먹어 설거지하고. 여덟시 아홉시야. 애기 목욕하고 저도 목욕하고. 쉴 시간 없어요. (R, 읍면부 거주)

대상자 F는 초등학교에, 대상자 H와 R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여성들이다. 전술한 육아하기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간 시간은 바쁜 일상 가운데 유일한 여유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동시에 해내야만 하는 집안일의 과업을 수행할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가사노동과 전술한 육아하기의 부담이 겹칠 경우 대상자들의 하루 일과는 육아와 그 사이의 가사노동으로 꽉 채워지면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센터 프로그램 참석, 외출, 친구 만나기 등의 일상적 외출은 부차적인 계획으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해 특기할 만한 점은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에 있어 시어머니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이다. 김민정(2007)에 따르면 고부관계는 한국의 부계원리가 작동하는 핵심 관계로서, 시어머니는 핵가족화된 한국의 부계 가족에서 유일한 여성 연장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국제결혼 과정에 개입하거나 결혼 이후에도 음식과 가사일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자신이 전담해 왔던 돌봄노동에서 벗어나면서도 가정 안에서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미를 띤다. (김민정, 2007, 이선형, 2013) 이렇게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한국음식솜씨, 음식취향, 가사 관리, 접대 예절과 태도 등으로 나타나며, 시어머니는 이러한 가사일 전반에 대한 간섭으로 며느리의 활동 시간과 공간에 개입한다.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이선형, 2013에서 재인용)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도 갈등이 있거든. 근데 다 문화가정 주부는 둘만이 살지 않아요. 70프로 80프로가 시부모나 시누나 뭐 큰 아주버님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하고 같이 엮어서 살아요. 왜. 남편이 그런 어떤 한 가정을 꾸릴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7-80프로가 있기 때문에. [...]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남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경제적이거나 이런 가장으로서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새마을 부녀회 관계자 X)**

가르친다구 맨 처음에 그렇게(같이) 살더라구요. 가르쳐 가지고 분가를 나중에 시켜주시는데. **(경찰 관계자)**

길게는 입국해서 2,3년, 짧게는 1-3개월 간 언어가 어렵고 정말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인격체로 인정을 안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죠. 긍정과 지지가 없기 때문에 집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결혼할 땐 부모 교육이 특히 남성들에게 필요하다 느끼는데요, 정말 어린애처럼 자립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도 둘이 살면 어려움이 많으니 데리고 살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 기관 관계자)**

이상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써, 한국 문화와 음식이 낯선 결혼이민여성 며느리에게 가사일을 가르친다고 하여 시부모가 합가를 요구하거나 합가 이후 생활 전반에 간섭하는 경우가 잦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존재는 가내 역할과 가사 및 양육을 둘러싼 도움과 통제라는 양 방향으로 해석된다. 결혼이민여성에게 있어 시어머니는 낯선 가사일을 대할 때 큰 조력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는 갈등의 대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김민정, 2007) 이렇게 '며느리 가르치기'를 내세운 시어머니의 통제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익숙해질수록 약화되기 마련이지만, 특히 정착 초기에는 대상자의 시간 계획

이 가사 노동에 관련한 과업 위주로 고정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저녁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저녁에 나올 거면 그래도 밥은 먼저 해야 돼요.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니 오늘 나가야해 그러면은 그냥 나가고, 네 시아버지가 있어서. 그러면은(나가려고 하면) 얘기해야 돼요. .. 잔소리 하나까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K, 읍면부 거주)

그때는 신랑이 결정한 거예요. 신랑이 결정하고 그냥.. 같이.. 뭐 한때는 부모님 같이 살으니까 배우는거 많고 애들 교육 크는 것도 좋아요. 뭐 그런거 생각하고 같이.. 음.. 저는 한국에 와서 말도 말 배우는 것도 뭐.. 또 어르신한테는 뭐 김치 배우는 것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로 김치 할 줄 몰랐어요. 저 처음에는 김치 할 때는 진짜 국물이 하나도 없었고. 국물이(웃음). 우리 시아버지가 이거 무슨 맛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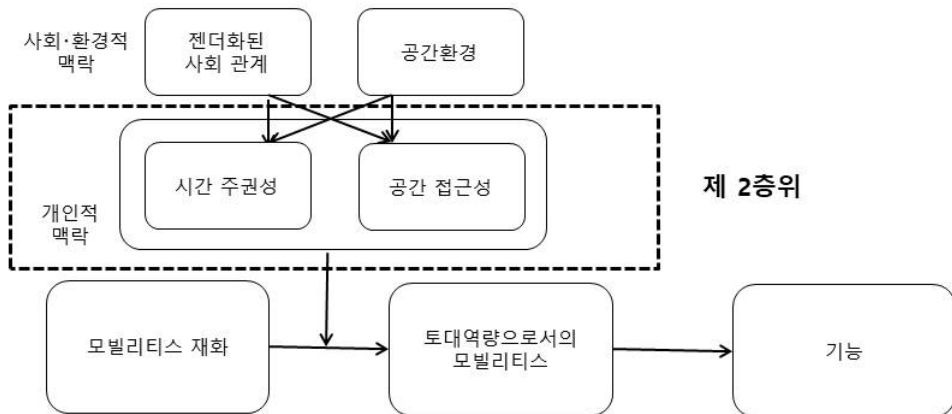
네. 왜냐 저는 저기 친구랑 같이 우리는 놀러갈 때는 신랑은 같이 가는거 좀 괜찮았고 신랑 안가면... 좀..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좀 부끄러워서.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좋아요. 네. 진짜 우리한테는 잘 애들한테는 저한테도 가셔도 진짜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냥.. 그래도. 좀.. 좀 있잖아요. 친정 엄마도.. 시어머니한테는.. 좀 차이 좀 있죠. 네 약간. 약간은.. 좀. 뭐 그냥 얘기해도 어우 갔다와 그래도 에이 혼자 계시니까 집에.. 좀.

네네. (친)엄마는 뭐. 엄마한테는 그냥 아 오늘은 친구네 집에 간다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 가도 엄마는 뭐 괜찮은데. 어머니는.. 다 이해 해주는데도 또 좀 그렇죠. 스스로. (T, 읍면부 거주)

대상자 K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녁에 아이는 시부모님에게 맡기고 외출은 할 수 있으나 꼭 저녁은 만들어 놓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상자 T는 외출에 시부모님의 허락을 구해야 했는데, 이때 시부모님은 저녁을 해 놓았는지 물어본다고 하였다. 대상자 T 역시

남편의 결정에 따라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였다. T씨는 한국에 온 지 14년이 되어 귀화한 상태에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아이들도 십대가 되어 크게 손이 가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방문 중인 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같을 수는 없으며,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외출을 하면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K씨와 T씨의 경우를 통해 가사노동과 육아 담당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집을 비우는 것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이 없어도 시부모에게 외출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앞서 다룬 구속 및 감금의 기제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제 4 장 모빌리티스 제약 제 2 층위 :개인적 맥락



[그림 6] 모빌리티스 제약의 제2층위

본 장에서는 모빌리티스 제약의 제 2층위인 개인적 맥락을 주로 설명한다. 제 1층위의 사회·환경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공간 접근성과 시간 주권성에 제약을 느끼게 된다. 공간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이동의 읍내 제한, 추가적 이동 제한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시간 주권성이 낮을 때 여성들에게는 배우자 시간 의존, 미래 계획의 불확정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 1 절 공간 접근성 제약의 결과

1. 이동의 읍내 제한

상기의 논의에서는 읍면부의 공간 환경 특성인 지방도 형태 및 이륜차 도로 부재로 인해 시내버스 외의 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읍면부 거주자들의 이동 범위가 읍면 내로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부 거주 여성들에게 일상 외출에 대해 물었을 때 집 외부에서 친구 만남(대상자 B,C,D,J,M,U), 키즈 카페 방문(대상자 G,M), 영화 관람(대상자 D,J,U)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한 이동이 확인되었던 것과 달리 읍면부 거주 여성들은 다문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 외에는 주로 읍면 내에서 가정관리¹³⁾ 관련 활동을 위해 외출하거나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대다수 이동의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타 읍면부나 '시내'라고 일컬어지는 동부의 여가 및 편의 시설물에 대해 무지하였으며, 알고 있어도 자주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답하였다. 반면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부 내의 공간 환경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읍면부 거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읍면부 내로 이동 제한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들 사이에서도 이동의 제약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읍면부 내에서 얼마나 자주,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는가의 차이는 이들이 보유한 친구 네트워크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동에 제한을 겪는 읍면부 거주자들의 여가 활동, 그 중에서도 친교 활동은 읍내에서 얼마나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 각기 다른 ㄱ면과 ㄴ리에 거주하는 대상자 K, S의 경우와, ㄷ읍 결혼이민여성 모임에서 회장을 맡아 매우 활발한 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V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네 저 친구는..없어요.(웃음) 그래도 여기(센터) 만나고 공부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말 안하니까 저는 모르는데. 같이 얘기 무슨 얘기인줄 모르잖아요. 그냥 베트남 얘기하는거. 그래도 한국말 얘기하면은 우리도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는데. 라오스 사람 없는데...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한데..

13)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대분류 4. 가정관리 - 분류코드 4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 471. 상품 매장 쇼핑 - 생활용품(장보기), 의약품 등 구입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가이드라인, 2014)

(일상 외출) 일 주일에 한 번 두 번. (읍내) 마트랑 시장. 그리고 여기 저수지. B면에서는 그거가 커요. 저기 저수지에 그냥 걸어요. 가까우니까요. 산책. 아니면 저는 집 안 있으면 애들 보내고 저는 가게 와요. 신랑하고 같이. 시아버지 같이 가시기도 하고.

[연구자: 그럼 버스 타는법은 언제 배웠어요?] 올해 19년도니까 작년 9월달인가? 네 9월에요. 가을에. [연구자: 그럼 그전까지는 버스타는 법 모르잖아요. 밖에 어떻게 나갔어요?] 신랑 같이 나갔어요. [연구자: 5년 동안 계속이요? 신랑 바쁠 때는 안 나오고?] 네. 그래도 자주 데리고 나와요. 애들 때문에 맨날 집에 있고 너무 심심하니까. (K, 읍면부 거주)

캄보디아 사람 많지 않아요. 캄보디아 사람 한명도 저기 E면 살았는데 지금 세종 갔어요. 네 저 다 혼자서. 캄보디아 사람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 말로는 캄보디아 사람들 두 명 세 명 생겼거든요? 다 없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심심해도) 괜찮아요. 밖에 어디 다 나가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밖에 사람도 없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마을. 전 마을 살았는데요, 집도 많고 밖에도 나가고 해도 돼요. 그냥 거기 마을 사람인거예요. 캄보디아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저런 동네 마을 사람 많아요. 한국은 산 때문에 저는 또. C리는 사람, 집 많지 않아서. 근데 캄보디아 고향에는 지금 집 엄청 많아요. 그냥 뭐뭐 다 사람들이 와요 가요. 와요 또. 슈퍼마켓도 또 많아요. 식당도 많고. 그냥 심심치 않아요. 근데 한국은 저는 다른 사람도 집에 있고 동네는 좀 멀어요. 버스 없기 때문에 조금 있어요. 시간 안맞아요. 그냥 어디 가도 남편. 혼자 못해요 지금. 얘기도 혼자 두기 힘들어요. (S, 읍면부 거주)

[연구자: 모임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처음 ㄷ읍 베트남 친구들.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만나고, 친해지고, 뭐 필리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만나고 중국분도 있고, 또 중국사람도 만나고 거의 몇 명 알고 그래서 같이 지내서.. 요즘도 가끔 연락하고 그래요. ㄷ읍에서 만나요. 우리끼리 멀리 못가요. 거의 다 ㄷ읍 살으니까 ㄷ읍에서 밥 같이 먹고 모임을 또 해요 [...] 혹시 만나고 싶으면은 식당이나 커피숍 거기 가서. 네 ㄷ읍에서. 가끔 한 두 시간이 되면은

커피 한 잔 먹고 얘기도 하고 뭐 먹는거 의논해서 같이... 다들 보통 차 알아서 구해서. 가까운 사람이면 걸어오고. 저같은 경우면은 차 이용이 되고, 안 그러면 미리 알아보고 안되면 버스 타고 나가고. 거의 그때 되면 버스 타든지 아니면 차 타고. 거의 제가 모임 보고 할 때는 거의 신랑 차 끌고 가. (V, 읍면부 거주)

대상자 K는 라오스 출신으로서 이는 공주시에서는 드문 출신 국적이다. 같은 마을에 라오스 사람이나 다른 친구가 없는 K씨의 외출은 주로 집 주변을 아이들과 산책하는 것이다. 버스 타는 법을 최근에 배워 센터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외에 거주하는 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남편과의 외출 말고는 없다. 대상자 S는 비교적 흔한 캄보디아 출신 국적이지만, S씨가 사는 ㄴ리는 민가가 드물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S씨는 근처에 캄보디아 사람이 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걸어서 만나러 가기는 힘들고 버스는 시간이 맞지 않는 등 외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S씨와 K씨는 읍내에서도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

반면 대상자 V는 베트남 출신으로써 비교적 변화한 ㄷ읍에 도착한 이후로 이웃해 있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과 안면을 텃다. 이후 읍사무소를 드나들게 되면서 다른 결혼이민여성들을 만났고, 한국어가 숙달되면서 다른 국적의 여성들까지 함께 자주 모임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읍내에서도 자주 친구를 만나고 활발히 사교 활동을 하고 있는 V씨와 S,K씨의 삶이 다른 양태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V씨의 경우에도 읍내 안으로의 이동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었다.

[연구자: 그러면 면허 따시고 읍 밖에는 안 갔어요?] 네. 멀리 안 갔어요. 멀리 가면은 신랑이 차 운전하면서 데려가요. 애들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땐 처음 운전하니까 신랑은 위험할까봐. 제가 운전하면 애들 있으니까 위험할까봐 차 못 끌게 하고 신랑은 따로 따라서 같이 가요. [연구자: 아 신랑이 운전하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은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이게 많이 안했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웃음)

뭐 저는 그냥 그냥 하는데, 그래도 ㄷ음만큼 나갈 수 있는데 공주만큼 나가면은 저는 아직 자신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가면은 누가 옆에서 같이 가면은 제가 가는데 혼자 갈 만큼의.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 사고 날까봐. 도로에 차가 많아서 제가 아직 그런거 감이 못 잡혀서 좀 무서워 가지구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저도 몇 번은 신랑 같이 해서 공주 나갔는데, 신랑이 옆에 가면 신랑이 말해 주니까 어떻게든 했는데 신랑이 없으면, 혼자 운전하면은 어떻게 하지 하고…

축제 있으면은 가까우면 가는데 너무 멀으면 포기하게 돼요. 멀으면은 신랑이 (시간) 안 맞으면은 못 가요. 네 저는 그런거(읍 밖으로의 운전) 부담이고, 신랑은 또 시간이 되야 가고, 저 아버님이 트럭 끄니까 그건 못가고. 문제 많이 있어요 (V, 읍면부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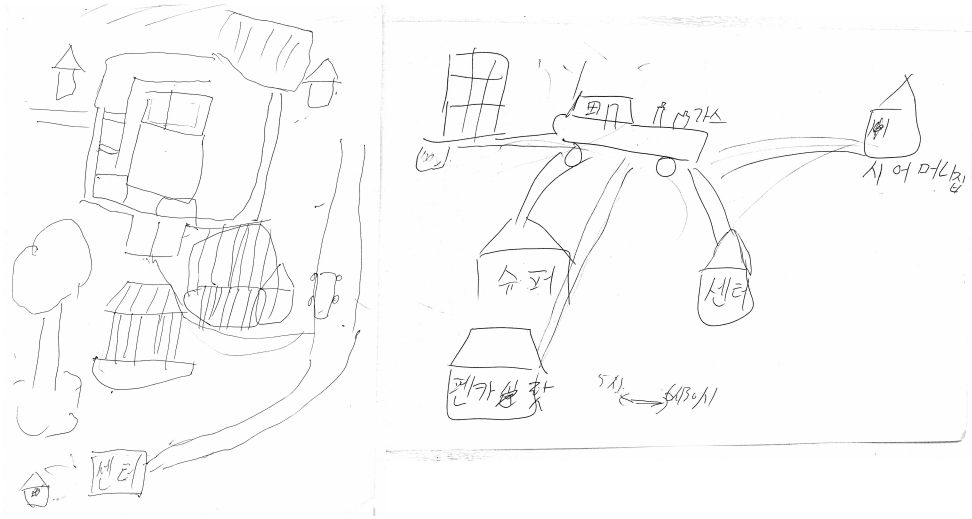
V씨는 남편의 차를 이용해 읍내에서 이동하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 읍 외로 차를 가지고 나가는 일은 ‘자신 없어요’ ‘좀 힘들어요. 사고 날까봐.’ ‘도로에 차가 많아서 제가 아직 그런 거 감이 못 잡혀서 좀 무서워 가지구요’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일상 필요를 넘어서는 외출에 대해 배우자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V씨나 다른 여성들이 차이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신랑은 매번 이들의 외출에 협조적이지는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동은 읍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추가적 이동 제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적용되는 가족들의 전방위적 감시, 이동에 대한 구속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바깥의 모든 자원에 대해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제약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상태에 놓인 여성들은 일차적으로 대중교통, 차량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동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친구, 사교 활동, 모임,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이것이 다시 기타 센터 및 시 차원의 프로그램, 모임과 취업에 관련한 정보의 습득에 취약하게 만들어 추가적인 이동을 방지하고 있었다.

이전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결혼이민여성들의 몸은 가족의 공공재처럼 다루어지며, 외출은 허락이 필요한 문제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 정착 초기부터 '도망' 담론을 의식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여성은 '도망' 담론에 맞서, 또 결혼이민이라는 불안정한 계약 위에서 진정한 가족 되기에 힘써야 하고, 그 첫 번째 증명은 빠른 임신이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불안정한 건강 상태와, 임신한 몸의 관리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는 가정 내 분위기는 여성들로 하여금 외출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게 만든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정착 초기에 제도적 지원 및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또한 각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출산 이후에도 가족들의 감시나 동반의 실천이 느슨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결혼이민여성이 외부의 정보, 친구 네트워크 등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시켜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속과 감금의 유경험자인 대상자 F와 O의 인터뷰 응답은 이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연구자: 버스는 왜 안 타 보셨어요?] 타고 싶었는데! 몇 번 타는 것 몰라요. 어디까지 가는 것도 모르고. [연구자: 씨 있는 것 있잖아요.] 씨 있는데래두 어디 어딴는지 몰라요. 왜냐면 안 나가니까. (웃음) [연구자: 한국어를 이렇게 잘 하시는데 봐도 헛갈려요?] 예. 그런데 우리 집 주변이 있잖아요. 이거 어딴고 이 쪽은 어딘데요. 지금은 몰라요. 안 가니까. 그래서 집에만 있구 얘기를 들보구 학교 가잖아 학교 가구 오구 테리구 집에 바로 오구. 그래서 나가는 것 전혀 없어요. [연구자: 그러면 답답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거 있어요. 답답하면은 심심하면은 그냥 숨을 (크게 두 번 들이쉬고 내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구 괜찮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만날 사람 없잖아요. 갈 데도 없구. 그래서 집에만 밖에 없잖아요. (F, 읍면부→동부 거주)



[그림7, 8] 대상자 F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초혼과 재혼 당시

연구자가 대상자 F에게 공주시에서 외출하는 곳과 알고 있는 곳을 전부 그려 보라고 요청하였을 때, 감금 상태에 있던 초혼 때와 현재의 그림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초혼 당시 F씨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 남편과 살 때에, 그의 주변에 대한 지식은 걸어갈 수 있는 마을 내의 범위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단 한 노선을 알고 있는 버스를 통해 센터를 오갔다. 재혼 이후 F씨는 매일 어디든 데려다 주는 남편을 만났고, 이는 그가 버스 노선을 익혀볼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외출은 다시 한 번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집 주변과 남편의 배달 차량으로 돌아다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F씨는 정착 초기 한 차례 고립을 겪었고, 감시와 폭력을 가했던 전 남편과 이혼을 통해 결별했다. 오랜 한국 생활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낯선 환경이라는 제약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었다. 남편은 F씨가 가고 싶다면 대체로 이동에 협조적이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동을 의존하면서 그는 다른 이동 수단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동의 목적지가 될 공주시의 편의 시설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졌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생활 속에서 친구를 사귄 일도 없었다. '만날 사람 없잖

아요. 갈 데도 없구.’라는 F씨의 말처럼, 만날 사람과 목적지가 없다는 사실은 F씨에게 여전히 추가적인 이동을 방지하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상자 O의 경우 필리핀 출신으로, 센터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른 필리핀 출신인 P씨의 말처럼 센터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친구들끼리도 모임을 한다. 카카오톡 채팅방과 페이스북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며 정보를 나누고, 계를 만들어서 함께 돈을 모으고 놀러가기도 한다. P씨는 센터에 다니는 필리핀 사람은 거의 다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였지만, O씨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집에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P씨가 참여하는 필리핀 모임에서는 새로 생긴 식당 등 외출에 관한 정보와 센터에서 무료로 나눠 주는 물품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O씨는 이러한 정보에서 유리되어 있었으며, 어차피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보통 (필리핀 사람들) 여기 다문화센터에서 만나는데 요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연락해 가지고. 어디 모임 있어. 필리핀 모임도 있어요. 필리핀 친구들 모임 있어. 페이스북그룹도 있어요. 서로 소개시켜 줘요.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십명? 삼십명인가? 있어요. 이거 필리핀 사람들 많아요 공주시예. 많아요.그냥 모임 이런 거 우리는 이만원 [...] 한달에 이만원? 만들었어요. 돈 모으려고.네. 모아요. 모아서 나중에 필리핀 가고 싶으면 돈 가져가도 되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줘요. 담당하는 언니. 여기. 좀 오래 됐어요. 언니. XX언니. 여기 온 지 오래 됐어요. 십오년인가? (P, 읍면부 거주)

여긴 필리핀인들 있어 근데 전 안가요. (가족들이) 안 보내고. 근데 나도 말 안 하고. 어떻게 싫어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그거 잔소리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냐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어 하는거 다른 사람 부러워 할라고 그렇게 안 보내나 봐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만나지 말라고. 음..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뭐냐 그냥 집에서 자거나 해요.(웃음) 그냥 자요. 아니면은 드라마 봐요. (O, 읍면부 거주)

대상자 O처럼 이동에 늘 허락과 가족의 동반이 필요하고, 이동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하는 제약 상황에서 대표적인 모빌리티스 재화인 차량과 면허는 이동으로 치환되지 못한다. F씨와 O씨는 둘 다 면허 보유자이지만, 아예 운전을 하지 않거나 혼자 운전을 하지 못한다. F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차량 외에도 차량이 있지만 상술하였듯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고, O씨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 딴 이유는) 아들을 데리고 밖에 좀 놀으려고. 어디 재미있잖아요. 어디 축제 있나 그러면 축제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면허증 땀어요. 근데 면허증 땀는데 문제는 밖에 나가는 길이 자신감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요. 신랑 옆에 자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신랑도 시간이 없구 이것도 안하구 낚시하구. 그냥. 면허증 따구 안 따구 똑같어. 면허 딸 때는 우리 아들 밖에 구경하고 싶어서. 그거만. 신랑 기대지 않구 내가 아들 데리구 밖에서 이런 것 구경하구 저런 것 구경하구. 그래서 땀었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한숨) (F, 읍면부→동부 거주)

(면허 딴 이유는) 음.. 운전을 배우라고 해서. 편하니까. 어디 가기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에는 저기 다 머니까요. 마트도 멀어요, 시장도 멀어요, 은행도 멀어요. 모든 게. 근데 농사도 다들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저기 농사도 저~기 걸어 가면은 힘들잖아요. 짐도 저기도 놓구 그러면. [연구자: 그러면 별로 생각 없었는데 아버지가 따라라고 해서 따신 거예요?] 네. 뭐냐. 어디가면은 운전하라고. 아버지는 (농사) 갖다 놓은 거에 내가 언제든 저기 뭐냐 이렇게.. (O, 읍면부 거주)

이미 일차적으로 자유로운 이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빌리티스 재화는 쓸모가 없었고, 추가적인 이동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F씨는 집

에 남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O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실제 운전은 하고 있었지만, 늘 가족의 동반 하에 지정된 목적지를 오가는 이동을 하고 있었으며 운전에 대해 자유롭다거나 재미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O씨의 이동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기능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강제된 이동이었으며, 이는 자신의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한 토대역량으로서의 이동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자 F와 O의 경우를 통하여 공간 접근성 제약이 곧 외부 자원 및 네트워크로의 단절을 낳고, 추가적 이동을 방지하여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시간 주권성 제약의 결과

1. 배우자 시간 의존

외출에 있어 시내버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이동은 일차적으로 버스 시간표에 의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친구를 만날 때부터 구직을 할 때까지, 항상 버스 운행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하 읍면부 거주 여성 W씨와 K씨의 발언은 친구 네트워크의 유지와 취업 가능의 여부가 어떻게 버스 시간표에 의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네. 친구가 아 나는 버스가 이 시간 이 시간에 있구나. 나는 이 시간에만 놀고. 다음에 우리 만나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W, 읍면부 거주)

(취업여부) 네. 얘기 학교 가면. 네. 그래도 일은 하루 동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네. 그래도 뭐 차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대로면 차가 있으면 나중에는 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면 시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애기도 (셔틀 버스) 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네 애기오기 전엔 집에 있어야 돼.

(K, 읍면부 거주)

그러나 출퇴근과 같이 정기적인 외출의 경우 시내버스와 시간표를 맞출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이동 필요는 더 복잡한 일정 조정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어머니역할과 가사 노동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아이의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고, 버스 시간과 이 모든 스케줄이 맞아떨어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버스 시간표 외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차량은 남편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스케줄은 남편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짜는 형태로 맞추어진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저 혼자 다녀 못하는데 남편 시간도 없고. 시어머니 같이 안 살어. 남편만 돌이라니까. 남편 시간 없으니까 저 움직이지도 못해요. 친구도 없어요. 나와서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맨날 태워서 가야 하는데 남편 시간도 없어. 근데 뭐 혼자 걷다가 내리면 (정류장이) 엄청 멀어요. 버스정류장 여기 가고.. 힘들어 하고.. 그답에 아 할 수 없어 남편이 "운전면허 따라" 이렇게.. 근데 여기를, 한국 와서 육개월 됐는데. 한국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데. **(R, 읍면부 거주)**

(읍면 거주 당시)네 저기(시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길어요. 몰라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신랑.. 시간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신랑이 바빠요? 네 바빠요. 계속 일해요. 나 혼자 못 가요. **(E, 읍면부→동부 거주)**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근데 남편 바쁜거 때문에 못가요. 저는 또 대전 가고싶어. 공주(시내)도 가고 싶는데 남편 바쁜 때문에 또 버스 타 힘들어. 버스 타도 집 가면 기다려 힘들어. 애기도 힘들어요. 그냥 남편은 걱정해. 가지마세요. 애기 안좋으니까. 버스 타면 힘들어하잖아요. 사람 없음 괜찮은데 사람 많다 힘들어하고. 남편이 걱정해. 그냥 "혼자는 남편 없을 때 가지 마세요. 애기 위험해." 저도 애기는 혼자는 힘들어요. 못 가요. 아빠 같이 있으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애기 혼자 돌보는데 힘들어요. 막내도 또 우유 먹잖아요. 가방에 또 이렇게 있고 다.. 과자.. 이런거.. 다 넣어가야 해요. 혼자는 못해요. **(S, 읍면부**

거주)

도보 내에 존재하는 자원이 한정적인 읍면부의 특성상 시내에 나가는 필요는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 없는 큰 장보기나, 어린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내에 나가고 싶으면 R, E, S씨의 경험담처럼 언제나 남편의 시간과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S씨처럼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나가기도 어렵다. 많은 읍면부 거주 여성들이 아이를 혼자 데리고 버스를 탔을 때 아이 때문에, 혹은 짐이 많아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이동을 포기하거나 배우자 시간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들은 자주 ‘신랑이 바쁘다’ ‘신랑 일이 있으면 못 나간다’고 표현하였으며, 특히 아이를 데리고 하는 외출의 경우 신랑이 쉬는 날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미래 계획의 불확정성

어머니역할과 가사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에서 남편들이 주중 및 휴일에 이러한 돌봄, 가사 및 가정관리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특히 휴일에는 육체 노동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들이 술을 마시거나 피곤하다고 하며 외출을 거부한다는 응답도 들을 수 있었다. 시부모가 함께 사는 집이 많이 있었으나 시어머니는 대개 나이가 많아 큰 도움을 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구 및 가족 네트워크가 한정된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에는 대신 아이를 맡길 사람도 여의치 않았다. 외부 물정에 어두운 대상자들은 키즈카페나 아이들을 맡길 만한 유료 서비스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24시간 지속되는 어머니역할과 가사는 이들의 일상 속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항상 육아 및 가사에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혼이민여성들 개인 안에

서 스스로 시간을 통제한다는 감각을 빼앗고 있었다. 동시에 결혼이민여성
성이 실천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머니역할은 자녀를 둔 여성이 어머니로
서 양육 및 돌봄의 역할을 다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입하게 되
는 기제가 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역할과 가사는 결혼이민여성들로 하여
금 시간 주권을 빼앗고, 동시에 미래 계획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하는 요
인이 되고 있었다. 취업 계획이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나온 다음의
응답들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마 나중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 너무 나이 들었어요. 한국... 아이들 대학
가는 것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싸요.¹⁴⁾ (C, 동부 거주)

응. 나중에 조금 더. 애기 조금 더 놓고. 아이 크면. (M, 동부 거주)

네. 애기 학교 가면/네. 그래도 일은 하루 동안은(전일제) 안 될 것 같아요. 그
냥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 애기도 (셔틀 버스) 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
니까 일하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애기 오기 전엔 집에 있어야 돼. (K, 읍면부
거주)

나도 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해. 응응. 시간이 안
맞아서. 네.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회사 그럴 시간이.. 아홉시나 아니면 어
떨 때는 여덟시잖아 여덟시 반 시작하고. 그리고 여섯시까지. 우리 애기 다섯시
에 오는데. 여섯시까지 하면 우리 어머님 봐줘야 되는데 못 봐주고. 그래서 일
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애기. (P, 읍면부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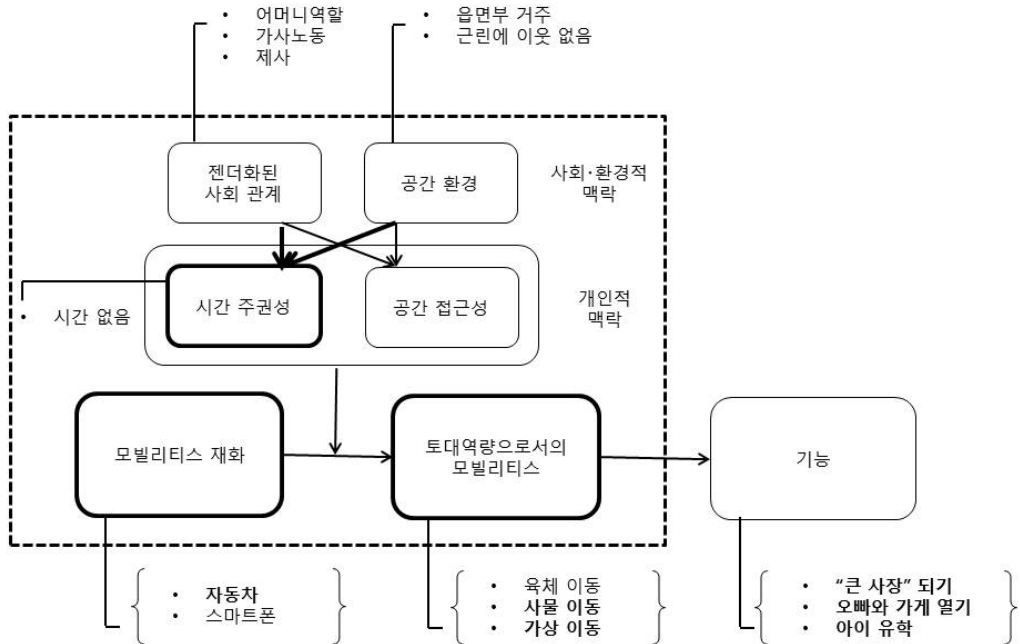
K씨와 P씨의 '애기 오기 전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역할과 가사는 결혼이민여성들로 하여금 시간 자원을 빼

14) 연구자 번역. 원문은 “maybe later. because I want to have my husband... he’s
so old. I want to... him because Korean.. it’s so expensive like children going to
university. it’s so expensive.”

앗아 취업 및 교육 등을 모두 미래로 미루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시간 조정이 아이 위주로 돌아가면서, 자신 위주의 계획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머릿속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모호한 바람으로써 남아 있었다. 연구자가 미래 계획을 물었을 때 현재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다수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말에서 취업은 모두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이후, 미지의 시점에 실행될 것으로 묘사되었다.

제 5 장 모빌리티스 제약의 극복 전략 사례

제 1 절 사물 이동 활용하기: 대상자 R



[그림 9]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으로 본 대상자 R의 사례

1.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제 1·2 층위

대상자 R은 모빌리티스 제약의 제 1 차원인 사회적 맥락에서 큰 제약을 부과받고 있다. 먼저 그는 읍면부 거주자로서, 집은 외진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가 외출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10분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또한 그는 과중한 어머니역할을 떠맡고 있는데, 이는 그의 집이 외진 곳에 위치해 아이를 위한 셔틀버스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직접 운전해서 아이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겐 더욱 힘겨운 일이다. 또한 그는 1년에 14번의 제사를 홀로 떠맡고 있기도 하다. 그가 처한 제약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 환경	멀리 위치한 집	특징	이동에 시간이 걸림, 셔틀버스 지원되지 않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 만나서도 시간도 없고. 왜냐면 친구들 다 여기(공주 시내) 살고, 저 XX(읍명) 나와서도 한 십분 걸려요. 시내 여기 신관 와서는 한 십오분 이십분 이동. [...] 저는 친구 만나도 힘들어. 참말로 저는요 여름에 친구 뭐 차 한잔 먹어 커피한잔 먹어 나와도 못해요 전요." · "근데 지금 애기 유치원 저도 아침에 보내야 돼. 전요 집에 데려가야 돼. 차량 안가요. 너무 시골 때문에 차량 안가요."
	인프라 없음	특징	가정관리 쇼핑에 이동이 필요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나가서 사지도 못하잖아. 또 시내 나와야 해. (목소리 커짐) 나오면 시내 살으면 바로 마트 이런거 다 있었는데..다 불편해요."
	버스 이용 불편	특징	버스 정류장이 멀리 떨어져 있음, 배차 간격이 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왔을 때) 버스 타는 거 어려워요. 그냥 집에서 항상 걸어서 내려야 해.(멀다)/ 근데 시간도 못 맞춰요. 몇 시 버스 있어. 몇 시 버스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갈라면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도 할 수 있어. 삼십분 기다려도(기다릴 수도) 있어. 시간 못 맞추니까 몰라요 어떻게."
젠더 화된 사회	아이 등하원 책임	특징	아이의 유치원 등하원 및 학원 등하원 책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보내야 돼, 뭐 해야돼, 저도 똑같이 데려와야 돼, 데려가야 돼. /(버스) 여기 너무 멀어서 안 해줘요. 다 안 해줘요 다 안 해줘요. 시내에 다 해주는데 여기까지 안 해 준대. 네 안 해줘요. 항상 저 혼자 아침에 데려 가고. 저 출근 하고. 퇴근하고 나면 유치원 가서 데려 가고.." · "시간 많가지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도 데려가야 돼,

관 계			저는 또 바빠. 그냥 이렇게 낮에 마치고나면 저 학원.. 학원 어디든 데려 가야 되잖아 집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바쁠 것 같아요.”
	휴일 아이와 외출	특징	휴일 아이와의 외출 전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그냥. 어차피 애기 친구도 없고 맨날 집에서만 안 돼요. 데려 나와서 친구도 만나하고 놀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애 친구 없어놓으면 학교다니면 힘들어요. 어디 다 돌아다녀요. 여기.. X월드. 세종시.” · “네 다 가요. 여기도 뭐 놀 거 있으면 다 가요. 놀 거 있으면 저 어쨌든 얼마나 힘들어도 데려가서 나가요 놀아줘요. 왜냐면 저도 주말만 쉬어요. 주중엔 다 출근해야 되니까. 주말만 쉬고 애 데려가서 놀고.”
	제사	특징	1년 13번의 제사 준비 담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힘들어. 새벽 두시 다 설거지하고 다하고.. 이렇게. 한 달 두 번 한 달 한 번.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 다음에 시어머니 와서도 잔소리 불러대고..”
	가사 노동	특징	전반적인 가사 담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평일 출근하고, 주말만 쉬니까. 주말 쉬지도 못해요. 빨래하고. 뭐야 이불 빨래하고 집에 청소하고, 집이 또 커요. 40평 이렇게. 화장실 두 개 뭐 거실 엄청 커 방도 네 개 이렇게.. 다 청소해야 되잖아 시간도 많이 걸려요. 솔직히 여기 저도 나가 싶어 근데 청소 다 끝나면 완전 이렇게 해서(뺨는 시늉). 피곤해 죽겠어.” ·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 어떻게 나가냐.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 쉬어야 돼요. 근데 항상 저 금요일날 밤에 집에 와서 빨리 빨래하고 아침에 그냥 다 말려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집에 청소 다 끝나서, 아 오후시간서는 애기 데려와서 여기 와서 놀아하고 저기 친구 만나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일요일날 남편 쉬면 시간 있으면 같이 나와서 조금 놀아다가 밥 먹어서 집에 들어가.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평일날엔 집에 가서 밥 하고 밥 먹어 설거지하고. 여덟시 	

			아홉시야. 애기들 목욕하고 저도 목욕하고. 쉼 시간 없어요.”
--	--	--	------------------------------------

[표 3] 대상자 R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종합

[표 3]에 따른 제약의 결과 R씨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시간 제약이었다. 또한 인터뷰 중 R씨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

(바쁜 대신) 그래도 밤에 두 시. 한 시 이렇게 자고.

그냥 (집에서) 나가요. 근데 피곤해. 솔직히 여기서 나가고 싶어도 피곤해. 힘들어. (목소리 커짐)

네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남편 도움 없이) 맨날 혼자 하니까.

분명 R씨에게 주어진 제약들로 인해 R씨가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R씨는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각종 전략을 통해 주어진 조건과 협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후술할 논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강화하기

(1) 모빌리티스 재화로서의 자동차 활용

과중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맥락 상의 제약 요인들로 인해 R씨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제약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간 환경 상의 제약을 크게 느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 때문에 시간이 계속 부족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한

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남편 시간 의존하기'의 현상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R씨의 이동 욕구가 해결되지 못했다. 본래 도시에서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 이동이 차단되는 상황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R씨의 집은 외진 곳에 있어 기본적인 가사 관련 쇼핑도 불가능했다. 처음 왔을 때의 상황에 대해 그는 '어디 갈라도 해도 나가지도 못해요'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항상 '남편이 시간을 써서' 데려오고 데려가며 살았다고 했다.

(처음에 왔을 때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그냥.. 저 혼자 다녀 못하는데 남편 시간도 없고. 시어머니 같이 안 살어. 남편만 둘이라니까. 남편 시간 없으니까 저 움직이지도 못해요. 친구도 없어요. [...] 어...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남편 맨날 태워줬는데 남편도 시간이 없어. 근데... 아 어쨌든 (면허) 따야 돼. 뭐 혼자 걷거나, 내려도 엄청 멀어요. 버스정류장 여기에 가고... 힘들어하고...

OOO(도시 이름)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걸어 다니고 버스타고 택시타고 그냥 이렇게 살고. 면허 딸 생각 같은거 안하고. 여기 와보니까 그냥 시골. 완전 시골 이래서. 진짜 놀랐어요. 완전 시골 이래서. [연구자: 완전 시골인 줄 몰랐어요?] 몰랐어. 완전 산꼭대기 살아요. 눈물 얼마나 흘렸어요. 2년 동안 내내.

그니까. 저 원래 도시 살았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더 짜증나. 맨날 신랑한테 싸우고... 근데 신랑 받아줘. 왜냐면 시내 살았다가 시골 가서 살으라면 너무... 힘들어.

이에 따라 공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R씨의 첫 전략은 최대한 빨리 면허를 따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하였던 면허 취득 경험에 대해서 한국어를 몰라 필기 시험에 세 번이나 떨어졌고, 운전 자체도 무서웠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나와야 된다'는, 이동을 향한 확고한 의지는 운전 면허 취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그는 차를 통해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답에 남편이 "아, 할 수 없어." "운전면허 따라" 이렇게... [...] 남편도 따자. 안 따놓으면 어디 갈라면 너무 힘들다. 맨날 집에 있으면 또 우울증 걸릴까 봐요. 그냥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짖어.

근데 여기를, 한국 와서 육 개월 됐는데. 한국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필기를 한 두 번 떨어져서. 혼자 울고. 한글 읽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따냐고요. 필기를 두 번 떨어졌어요. 세 번째에 남편이 물어봐 주고 천천히 이렇게 가르쳐 줘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맞았어!

한 달 그냥 (연습) 나와서 그답에 한 달 반? 남편이랑 차 샀어. [연구자: 처음 운전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떨려 무서워. 이렇게. 엄청 무서웠어. 근데 무서워도 할 수 없어.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대표적인 모빌리티스 재화인 자동차는 여가, 통근, 휴가를 위한 지배적인 모빌리티 수단이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자동차는 유급 무급 노동 사이의 맞지 않는 시간을 다룰 수 있게 하고, 파편화된 시간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방'을 선사하기도 한다. (Wajcman, 1991; Urry, 2007/2014에서 재인용) 또한 젠더 연구자들은 자동차 운전이 여성들에게 있어 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Gardner and Abraham, 2007; Sheller and Urry, 2000)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R씨에게 나타난 변화 또한 단순한 운전 이상의 것이다. 먼저 차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공주 시내라는 인프라 및 자원 취득으로의 길이 열렸다. 그는 먼저 직접 운전하여 센터를 방문, 한국어와 각종 취업 자격증들을 취득하였다.

예 지금은 뭐 그냥.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싫으면 또 뭐 나가면 돼. 좋고 싫고 또 말도 할 수 없어. 싫어도 뭐 말하지도 못하고. 안 좋아하면 나만 짜증

나하고 나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아 이렇게 하자. 어쨌든 차 있으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자. 남편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 기름값 이런거 생각하지 말라고. 남편도 알아. 시골 살으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낮에 친구 만나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그냥 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차를 통하여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자신의 시간 및 이동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시간 주권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이 답답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과된 가부장적 의무와, 그것이 수행되는 공간을 벗어날 힘이 생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그는 차를 통하여 이동하며 이러한 의무와 자신만의 시간 사이에서 스케줄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동차가 모빌리티스 재화로서 갖는 '특징'을 한껏 끌어내 활용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후술하도록 한다.

(2) 가상 이동을 통한 사물 이동 극대화

중국에 있을 때에는 옷 장사를 했던 대상자 R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근데 저는 가만 있지 못해요. 이것 해서 (돈) 못 벌으면 딴 거 찾아 돈 벌어야 돼요.'라고 설명하였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R의 생각은 이재에 밝은 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낯선 한국에서 생활하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에서 낯선 시골 생활과 무거운 가사 노동 부담 탓에 남편과 많이 다투면서, 결혼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늘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혼자 (돈) 벌어야 뭐 쓰는 거 편해. 남편 돈 달라 하면 뭐 살라면 눈치 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혼자 돈 벌어서 뭐 할라하면 편해요. 남편이 용돈도 주는데 근데 내.. 내 속 편하면 혼자서 벌어서.. 나중에 이거 비상금. 나중에 뭐 신경 쓰려면 여기다 항상 비상금 있어야 해요. 없어 놓으면 불안해. 항상 몰라요. 왜냐면 문화도 틀려. 뭐 신랑하고도 틀려요. 근데 우리 여기 시집

오면 남편은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 안 그래요. 입장 바꿔 생각 안하고 그냥 맨날 우리 한국 뭐 이런 거 따라 가야 돼.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도 중국 한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보고 바꾸라면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서로 뭐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되니까 싸우잖아. 나중에 뭐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돈 없으면 불안해. 그니까 돈 있어야 안전 이렇게 (생각해요). 막말로 진짜 어디 뭐 안 돼 무슨 일 생기면? 나 주머니에 돈 있어.”

그러나 한국에 온 지 3년차에 가사 노동에 더하여 제사 부담이 생겨나면서 시간 제약은 점점 커졌다. 아이를 임신한 때부터 앞으로 더 바빠질 것임을 예감한 R씨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인터넷 판매를 생각했다. 이후 그는 스마트폰의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중국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용한 플랫폼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메신저 '웨이신(wechat)'으로, 누구든 상점 등록을 하면 쉽게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애기 임신할 때, 애기 낳아서도. 계속 집에서 가만 있지 않았어요. 계속 돈 벌었어요. 인터넷. 화장품 판매해서 이렇게. 중국 여기 한국 설화수. 알지. 밤에. 왜냐면 중국 사람이 낮에 다 출근하니까 시간 없어서. 밤에 많이.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웨이신 하고.. 저 핸드폰 두개요. 웨이신 그냥 두 개요. 사람이 많아. 여기 한 웨이신 천명 이천명.. 사람이 많아야 우리 판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핸드폰 두 개 하면 한 사천명 여기. 사람이. 물건 사고 뭐 이렇게...다 같이.. 저 원래 저는 한국 어... 애기했는가 모르겠네. 한국 카레. 뭐 다 올려줘서 다 팔어. 먹을 거 다 팔어. 누구 필요해 하면 그냥 택배 보내 하고.

R씨가 선택한 플랫폼에서의 판매는 시차가 다른 중국에서 24시간 수

시로 걸려오는 응대가 중요한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은 R씨의 시간 조정 전략 중 일부였다. 가사 노동을 부담해야 하는 R씨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내기는 어려웠지만 가사일 사이에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밤에 가장 많은 판매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응대를 하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것도 그의 시간 조정 전략 중 일부였다. 점점 고객이 늘어나자 그는 스마트폰을 영업용과 생활용 두 개로 분리하였다. 연구자가 확인한 그의 영업용 스마트폰에는 약 4000명의 고객들이 친구로 추가되어 있었다.

이렇게 R씨가 쓴 전략은 육체 이동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물 이동과 가상 이동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다. 육체 이동의 경우 자동차라는 모빌리티스 재화의 잠재력을 한껏 활용하였다. 차량을 이용하면 어린 아이와도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고, 짐을 옮길 수 있으며, R씨가 처한 거리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조정한 시간에 맞춰 바로 이동이 가능했다. R씨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물건 구매의 경우 가사노동의 사이 시간을 이용했다. R씨의 판매 과정에서 육체적 이동은 차를 몰고 나가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물건들을 한꺼번에 구매해 돌아오면 끝이 났다. 나머지는 집에서 찍어 올리는 사진과 메신저 소통 및 인터넷 송금, 즉 가상 이동으로 해결되었다. 다문화 혜택 제도를 활용해서 받은 할인을 통해 중국으로 물건을 부치는 사물 이동을 통해서 R씨의 판매는 완료되었다.

어.. 저 지금 한 4-5년 했어. 애기 태어나서 한 살 안 돼서 계속 안아주고 있을 때 시작했어. 아 그랬어요. 저 그냥 화장품 찍어서, 다 찍어서 올려주고 뭐 이렇게. 저 올려줘서 누구 이거 맘에 들어 이거 주문하고 돈 먼저 들어가. 돈 쥐 통장 들어와서 확인해서 그담에 물건 보내요.

애기 걸지도 못했는데 저 애기 들고 여기 시내 여기 화장품 가져와 차 실어서 집에 가져와서 포장하고. 그 담에 택배 보내하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그 때 한 달 삼 사백 팔아요.

다 여기 EMS. 우리 여기 다문화 10% 할인하고. 딱 가서 이제 다문화 할인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네. 외국 주민등록증 주고. 그 답에 십 프로 할인 받고. 한 번 5천원 열 번 넣으면 5만원이잖아. 그냥 작은 돈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거 쪽쪽 모여서 큰돈이….

3. 기능 추구: ‘큰 사장’ 되기

상기의 논의에서 대상자 R씨가 주어진 시간 제약을 돌파하여, 모빌리티스 재화를 활용하고 사물 이동과 가상 이동이라는 토대역량으로써의 모빌리티스를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에서 정리하였듯이, 이러한 토대역량 강화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이란 각 개인이 그리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적 연구와 차별화되는 질적 연구의 강점은 일반화할 수 없는 각 개인의 기능을 귀기울여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R씨의 경우 그가 삶에서 그리는 기능은 ‘큰 사장 되기’이다.

내 꿈이 혼자 장사하고 하는거. 저 식당 장사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한국 음식) 장사 하고 싶어. 왜냐면 여기(공주시) 장사하면 한국 사람이 더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중국 사람 있으면 얼마만큼 있겠어. 한국 사람이 중요해. 그냥 여기 봐서.. 그냥 저 솔직히 여기서 나 진짜 큰 사장 되고 싶어. 뭐 가게 몇 개 이렇게 차리고 싶어.

저도 여기 (음식) 장사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얘기 너무 어린테 안 돼. 나중에 얘기 크걸랑 하라고. 지금 그냥 가만 있어. 마음이 너무 급해. 빨리 돈 벌어야지.

네 지금 그냥. (인터넷 판매) 잘 안돼요. 힘들어. 요거 세금(수수료)도 많이 떼고 택배비도 많이 떼고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안하고. 딴 거 또 찾아보려고. 혼자 이 장사하기 힘들어.

그의 꿈은 식당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큰 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식당 장사가 해 보고 싶다. 사실 예전부터 시작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반대와 어머니역할의 수행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R씨는 마음이 급하다. 그에게 있어 한국 음식을 팔기로 선택한 것은 적응이나 정착의 의지보다는 자신의 가사 노동 경험과 공주시의 수요에 맞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현재 공주시를 벗어날 수 없고 예전의 경험으로 혼자 장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리사인 오빠를 한국으로 불러들인다는 전략도 짰다.

근데 저도 지금 오빠 지금 일본 있으니까 같이 와서 오빠 같이해요 장사. 오빠 요리사. 요리사.

아니야 그냥 뭐 가야 돼. 조사 어떤 거 장사 잘 되나 보고.. 뭐..네. 일 하고 그답에 또 내년 있으면 와서 한국 와서 장사 하고 싶어 오빠. 오빠랑 같이.

오빠 중국 요리사 저 한국 거 만들어. 김치 우리집이 김장 김치 뭐 다 저 혼자 해요. 시어머니 안 해줘요. 나 혼자 해요.

R씨의 오빠는 요리사로, 현재 시장 조사를 하러 일본에 가 있다고 한다. R씨는 이런 오빠를 한국으로 불러, 함께 장사를 하고 싶다. 또 지금은 이런 계획들 때문에 공주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아이와 함께 해외로 다시 이주할 생각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적을 맞는데, 이는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으로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취득 동기는 한국 국적이 국제 통행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국적) 우리 친구들 저만 딴 것 같은데. 저요? 왜냐면 애기 때문에. [...] XX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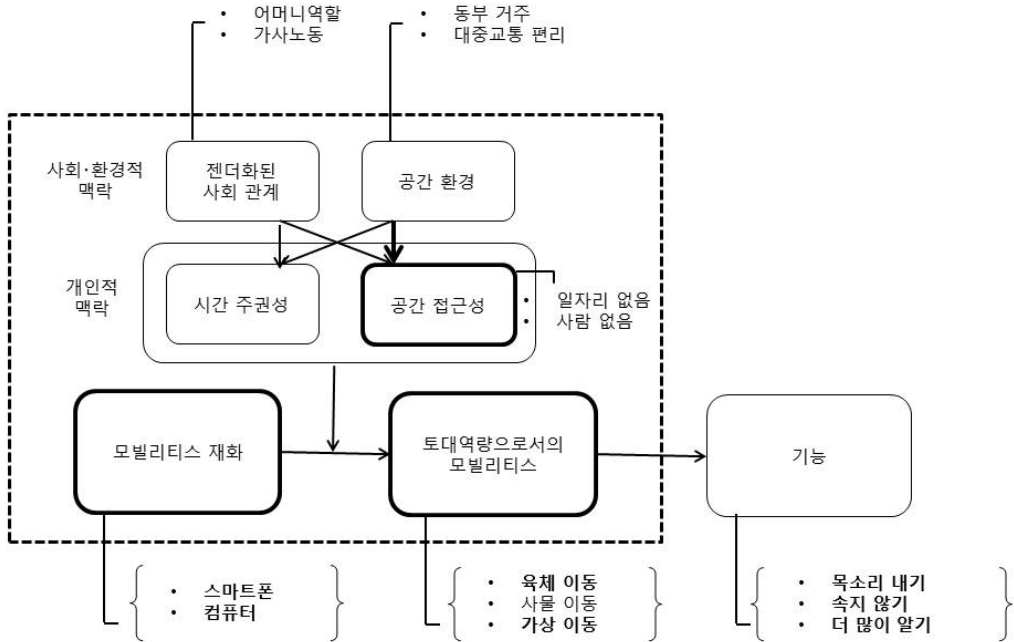
(아이 이름) 나중에 외국 나가면은 저 중국 사람이니까 여기 국적 없으면 어디 가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XX이 영어 잘해요. 나중에 저도 필리핀 뭐 이렇게 다 한 번 다녀, 한 번 가야해요. 재를 뭐 교육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우리 애기 외국어 관심 많아요. 러시아말, 영어, 중국어 지금 다 이런 것만 관심 많아요.

외국 가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저는 국적 있어야해. 애기 어디 가면 저도 따라 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자: 중국 국적으로는 안 돼요?] 네 어려워요. (중국 국적은) 어디 나라 가면 엄청 힘들어요. 돈도 엄청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돈도 엄청 많이 나가요.

이처럼 그는 아이가 외국 유학이나 이민을 원할 경우 함께 따라가 돌봐 주고 싶어한다. 중국에 살 당시에 그는 원래 국제 결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만큼 해외 이동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한 이후 그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한국으로 이주시킬 생각을 하는데, 이는 먼저 국제 이주해 온 가족이 연쇄적인 이주를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점이다. (장지혜, 2010) 또 그는 해외를 드나들며 아이를 교육시킬 생각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통행 및 이주가 수월한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등의 전략을 짰다. 결혼 이민의 경험과, 계속적으로 국제 택배(EMS)를 통해 사물 이동에 근접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이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 2 절 목소리 내기(voicing): 대상자 J



[그림 10]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 접근으로 본 대상자 J의 사례

1.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 제약 요건: 제 1·2 층위

대상자 J에게는 대체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정도의 제약이 부과되고 있다. 그는 두 아이의 등하원과 외출을 전담하고 있고, 가사 노동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성은 좋은 편이며, 한국어가 능숙하고 가족들도 이동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공간 접근성은 여타 대상자들보다 좋아 보인다. 그는 각각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의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일 택시를 동원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내에 살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 가능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표로 정리해 본 J씨가 겪고 있는 제약은 다음과 같다.

젠 더 화 된 사 회 관 계	공공재로서의 몸	특징	임신 당시 일을 그만둠
		내용	· “아쉬운 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된다구. 이제 임신 됐으니까. 2년 넘게 기다리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다 기다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그만두라고. 그날 바로. 그래서 그만 됐어요.”
	어머니역할의 실천	특징	아이 등하교 담당, 아이들과의 외출 담당
		내용	· “왜냐하면 아침에 큰애를 데려다주고 막내는 어린이집. 8시 반에 학교 가야 해서 버스 늦으면 못 타잖아요. 야간 할 때 남편이 데려다주고 주간 할 때 제가 4일 정도. 스쿨 버스는 없어요. 둘이 내리고 첫째는 학교가고, 둘째 보내고 집에 갈 때는 걸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혼자니까. 애들 같이는 이제 택시 타고.” · “어린이집은 버스가 와요. 데려다 줘요. 하지만 남편이 아침에 6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려다줘요. 큰애 데려다주면 9시 (둘째) 버스가 와요 그 버스에 늦어요 아침에. 올 때는 큰애는 학원버스 타고 집에 와요. 막내도 어린이집 버스. 남편 없을 때만 주간 할 때만 4일. 4일 야간 4일 주간 하잖아요. 큰애는 버스 데려다주고 막내는 9시에 버스 오니까 시간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 “(휴일 외출) 근데 저는 친구들과하고 많이 나가요 친구가 운전하니까 친구 애들하고 내 애들하고 같이. 근데 남편 자주 못 가요. 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내가 뭐라고 해도 소리지르면 그 때 해요.”
		특징	가사 노동 전담
	가사 노동	내용	· “왜냐하면 집에 계속 있으면 집안 일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똑같은, 똑같은 일이잖아요.”

[표 4] 대상자 J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종합

그러나 제약의 제2층위인 개인적 맥락으로 내려왔을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큰 도시에 살았던 그는 공주시가 좁고 답답하다.

경제가 어렵고 그가 꿈꾸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며, 우즈베키스탄 이민자의 수가 적어 모임을 갖기도 힘들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들에서 외국인 차별과 부당한 계약을 겪고 나니 더욱 자신의 이상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크다고 느껴진다. 이에 따라 타 도시로 통근하며 일자리를 찾기도 하였던 그의 이동을 현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번의 사고 경험에 대한 기억이다.

제가 2008년에 10월달에 왔잖아요. 근데 2009년 1월 2일, 사고 났어요…. 얼마 안 됐는데 온 지. 한국말도 못하고. 이게 남편이 친구 집에 가다가 전화하다가 큰 트럭 못봤어요. 갑자기 트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트럭 안에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놀랐어요. 그것(기억)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운전, 면허증 뺐어요. 하지만 혼자 어디 가는 것 아직도 못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힘내서라도 해봐야 되는데요, 자꾸 무섭다고 무섭다고 하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인제 애들 크다 보니까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겁이 많으면 언니들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애들 있으니까, 애가 그거를, 좀 튼튼하게 되면 그때 하라고, 애들하고 어차피 위험하니까. 겁이 나면 이렇게 탁 서버릴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 맥락에서 J씨는 차 사고를 겪으면서 도로가 무서워졌고, 공간 접근성에 제약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가장 보편적인 모빌리티스 재확인 자동차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면허는 뺐지만 아직도 도로가 무섭고 특히 아이를 태운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운전을 하지 않는다.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머니역할이 이 경우 제약 돌파를 가로막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아이를 우선하여 운전을 그만두거나 조심한다는 사고는 다른 결혼이민여성의 응답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연구자: 운전 면허는 왜 따셨어요?] 해보고 싶어서. 멋있어. 여자들 운전하는 게 멋있었어. 신나잖아요 스트레스 풀려. 처음에 운전 재밌잖아요. (웃음) 운전 배울 때. 뭐 차 다 끌고 가고 싶어! 누구 차 가져오면 다 끌고 가고 싶어. 우리 신랑 친구 차 가져오고 내가 그걸 갖구 한 바퀴 돌고. 스타렉스 아이 큰 차였거든. 그거 또 끌고 가서 시장 한 바퀴 돌고 온거야. 우리 신랑 놀래가지구 차가 어디 갔는지 처음에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 나 다 할 줄 아는데, 이젠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많아져. 처음에는 겁이 없어? 뭐. 나도 (운전해서) 서울 가. 갈 거예요. 갈 것 같애. (웃음) 지금은 안 돼.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고 나면 아들은 어떡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월랜 엄마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A, 동부 거주)

또한 J씨는 몇 년 간 비정기적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대전의 공장에서 두 번째의 사고 경험을 겪게 된다.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간 J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장에) 처음에는 친구랑 가봤어요. 친구하고 친구 남편하고 같이. 왜냐면 그 친구는 남편이 나이 좀 많아서 이렇게 직장 같은 데 못 다니니까 알바로 가봤어요.

그것은 2016년인 것 같아요. 8월에. 왜냐면 이게 제가 저기 돌아가는 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박스들이 자꾸 옆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를 살짝 밀면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옆에 사람도 없어요. 잠깐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지 아무리 뒤에 쳐다봐도 나 옆에 봐주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담배피고 있더라구요. 대부분 거기 학생들이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도 일을 신경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게 살짝 밀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 장갑이 고무장갑이잖아요. 고무가.. 붙어요. 맨손으로 했었으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고무장갑 때문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후로 기계 무서워요.

왜냐면 손 다치고 나니까 그거 생각하더라구요 무조건 직장(공장) 아니라고. 왜냐면 기계만 보면 겁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알아보고 다른 것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J씨는 더 이상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취직처인 공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공주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대전으로의 통근이 차단된 것이다.

2.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강화하기

(1) 목소리 내기(voicing)을 통한 네트워크 넓히기

사회적 맥락에 더해 개인적 맥락에서 큰 이동성 제약을 겪고 있는 J씨는 그러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통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J씨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자신의 높은 시간 주권성을 이용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친다. 연구자가 처음 그를 만난 것 또한 시 차원에서 진행된 다문화 정책 협의 토론회에서였으며, 여기에서 그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현실과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그는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있으면 늘 참석하며, 센터에서 진행하는 법률 교육에서도 그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공주시 경찰서와 병원에서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그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어 각종 기관에서도 통역이 필요할 때 그를 찾는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 같은 사람 또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못해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야 정부가 우리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부도, 위에 사람들도 무슨무슨 문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는 것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제약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 또한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연구자에게 계속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자에게 러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중간에서 이들의 입장을 한국어로 통역해 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난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모두 J씨를 알고 있었으며, 관계자들도 대부분 그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넓어진 네트워크는 운전할 수 없는 그에게 새로운 이동성의 수단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집에서만 있었을 때에는 알 수 없던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왜냐면 나라에서도 솔직히 이렇게 혜택 같은 것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 중국 사람들도 또 서로 알려줘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구요. 그래서 빠른 사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공장 일)하다 보니까 첫 월급이 한 백만원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90만원 남편이 가져가고 나머질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거를 생활비로 쓰려고 내 돈을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 그렇게 하나봐.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가져간 것.'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말 물어보면 알게 되잖아요. '원래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주는 거지' 그러더라구요. (웃음) '어 그러면 왜 가져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 이렇게 한국 사람들으면 '문젠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들어 보면 다문화들은 거의 각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 언니가 저 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이제 계속 남편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도와주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가서 찾아야 해요. 계속 (남편을) 건드려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얘기해도 안 도와주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알아보고 어떻게라도 내 힘을 내서 해야 돼요 [...] 왜냐하면 여기 와서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계속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참 바보였다. 왜 안 움직였어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딘지 도움이 나와요.

저는 친구들하고 많이 나가요 친구가 운전하니까 친구 애들하고 내 애들하고 같이 태워줘요. 여기는 거의 박물관, 대전 동물원도 가고 여기 바다 대천 해수욕장. 세종시 이마트 거기밖에. 애들 노는 데? 우리는 마트 보구 애들은 놀게. 근데 대전에서 유성 옆에 거기 애들 노는 데가 있어요. 대전 유성 뒤에. 놀이공원 같은 거. 거기 애들이 좋아해요. 그쪽으로 많이 가요.

(2) 스스로 교육하기: 유튜브와 인터넷 교육

그는 현재 가사 노동과 어머니역할에 더하여, 운전하지 못하고,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이동성 제약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그가 선택한 전략은 바로 스스로를 교육하여, 제약을 극복할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교육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운전도 할 수 있고, 공장에 통근할 필요 없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 중 계속 '배움'에 대한 것을 강조하였으며, 배움을 통해 나아지리라는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것 둘째가 이제 내년엔 학교 가면 그때 이제 제 생각에 (운전) 학원. 어차피 둘이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 가니까. 내가 그 시간이라도 (운전) 학원 가서 조금조금 배워야지.

애들 조금 크고 나면 이렇게 공부 쪽으로 많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장(공장) 들어가면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아침 저녁부터 직장밖에. 돈 벌어야 하니까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 배우면 배운 것에 대한 조금조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스스로를 교육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과 각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는 앞으로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어 공부라고 생각한다. 센터를 통해 여러 자격증을 땀지만, 실제로 외국인은 한국어 구사 문제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습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센터에는 그의 수준에 맞는 고급 한국어 수업이 없다. 따라서 그는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한다.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사장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학생들이 책 많이 읽으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책 읽어야 늘 수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애들 때문에 어디 가서 일도 못 하니까 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문화에서 교육 해주잖아요 이것 하는 것 어디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근데 배우고 나서 어디 가서 못 써요. 왜냐면 어디 가서 한국말 못 알아듣고, (외국인)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솔직히. 아무리 자격증 있어도 한국말 잘 해야 하잖아요. 한국말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야 쓰죠. 근데 한국말 많이 모르면 직장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만 아니면 농사 일? 그런 것밖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나라는 아무리 이렇게 간호사 미용실이라도 배웠어도 다시 실제로 배워야 하잖아요. 한국에서 자격증 따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격증 따도 많은 데서 안 써요. 외국인보다 한국 사람이 더 잘하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가 책을 추천받는 경로는 인터넷이다. 그는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를 구독하면서 그가 추천한 영상을 보고, 책을 산다. 또 인스타그램 검색도 활용한다. 광고를 클릭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읽을 책을 결정한다. 또한 그는 본국의 전문대학교에서 잠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장차 인터넷으로 옷 쇼핑물을 여는 데에 관심이 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온라인 교육·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강좌를 통해서 습득한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그런 것도 나중에 문구사에서 사서 애들하고 같이. 왜냐면 광고가 되는 책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 책 사는 것보다. (북리뷰 유튜버의 영상을 보여 주며) 책 많이 올려요. 그런 책들도 찾아보면서. 왜냐면 거의 매일매일 올려요 책 같은 거.

왜냐면 정보가 인스타그램에 많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쪽에서 써요(검색 화면을 보여 주며). 아니면 이렇게 있잖아요. (광고 화면을 보여준다) 가끔 광고가 나오요. 그 광고에 들어가면 밑에 한국 사람들이 댓글 달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책 읽은 건지. 사진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책을 문구사에서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보잖아요.

디자이너에 대한. 옷 만드는 것.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면 요즘에 핸드폰 컴퓨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 하나라도 배우면 인터넷 쇼핑물이라도 하나 그렇게. 왜냐면 이렇게 다른 일 해도 같이. 왜냐면 한국에는 한 가지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조금조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일을 못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 요즘에는 이제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못 배워도, 그게 쇼핑물. 인터넷에서 러시아(어로 제공하는) 공부 되게 많아요. 15회 이렇게 온라인 교육같은것. 15회 배워도 그거는 6,7만원밖에 안해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집에 육아 하면서 온라인. 왜냐면 그 CD도 보내 줘요. 내가 다운받으면 똑같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 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들었던 것을 선생님 온라인으로 하구.

사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잘 안해요. 거의 대부분 인스타그램에서 정보가 많아요. 아이디(이용자)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친정 부모님하고는 viber 영상통화. 은행 앱(쿡뱅크. 농협). 지그재그(옷 쇼핑물을 종합해 놓은 어플리케이션). 지그재그 그냥 봐요. 친구가 알려줘서 많이 봐요. 유행하는 것.

3. 기능 추구: "발전하는 삶"

상술한 바와 같이 대상자 J는 본인이 안고 있는 이동성 제약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네트워크 넓히기와 스스로 교육하기를 통해 '조금조금'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모빌리티스 재화로서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그는 가상 이동을 통해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그로 인해 점차 현실에서의 자원을 축적해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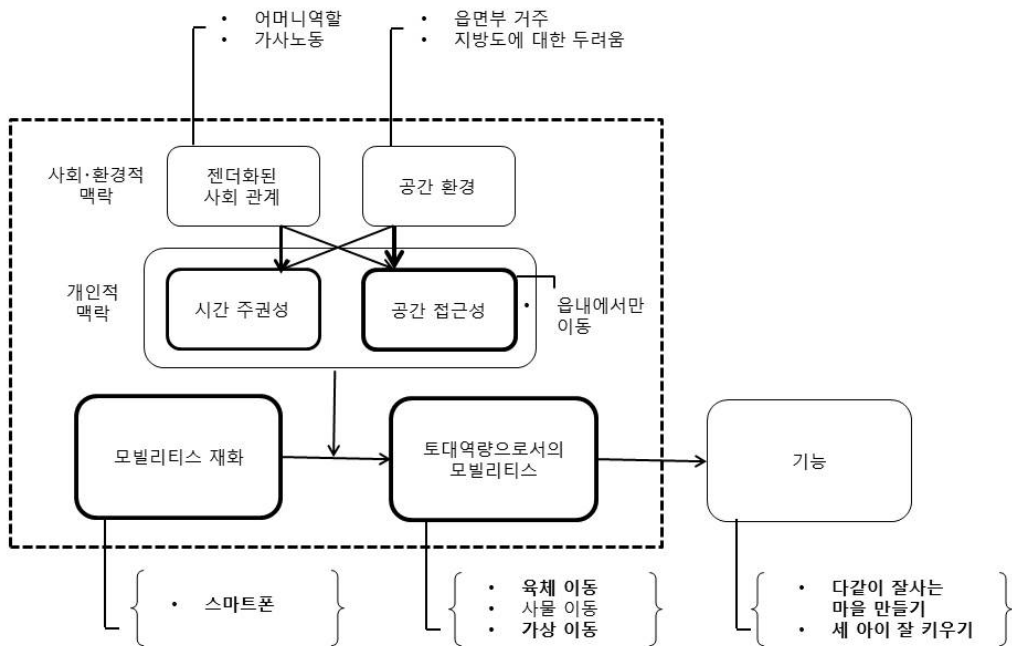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했으면 지금 우리 애들한테 그만큼 못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이 교육에 대한 것 좋구 그리고 월급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애들한테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라는 솔직히 자주 교육 같은 거는, 장난감 사고 싶어도 못 사줘요. 왜냐하면 그 월급을 받아서 이게 가족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애기 한국에 살면서 많은 정보를 또 알 수 있고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리 교육 다 받고 아무리 공부를 다 해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 곳을) 골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살고. 더 좋은 날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웃음) 그래서 살고 어떻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이쪽 저기를 배워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공부) 어떤 사람도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대는 핑계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60하는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젊은 데 못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다문화 같은 사람들은 배워야 일이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직장 알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게 뭐 미용실 같은것, 강사 해준다고 했지만 되게 어려워요. 한국 사람한테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일을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한국말 모르고 처음에 2,3년 동안 너무 답답해요. 음식같은 것도 그렇구.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공부를 계속 하면 조금 변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도 다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까 확실히 공부 많이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그의 기능은 '발전하는 삶'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사고를 겪었으나 노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겪었으나 교육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해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계속 발전과 노력을 계속하는 그의 미래 인식은 긍정적이다. 그는 한국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러 번의 사고와 차별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는 것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발전하기를 계속한다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마을 네트워크 형성하기: 대상자 V



[그림 11]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접근으로 본 대상자 V의 사례

1.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제 1·2 층위

대상자 V는 읍면부 거주자이며, 세 아이의 엄마이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시간 주권성 제약과 공간 접근성 제약의 내용을 두루 찾아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V씨는 읍 내에서만 이동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막 태어난 셋째 아이를 돌보는 지금은 거의 집에만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간 환경	지방도	특징	지방도에 대한 두려움
		내용	· “뭐 저는 그냥그냥 하는데, 그래도 XX읍만큼 나갈 수 있는데 공주만큼 나가면은 저는 아직 자신 없어요.”
	이륜차 도로 부재	특징	오토바이를 탈 수 없음
		내용	· “생각 해 봤는데요, 근데 신랑이가 여기서 오토바이 타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냥 안사줬어요.” · “네. 저 안에서 오토바이 하나 있는데 제가 와서 위험 할까봐서 누굴 갖다 찾아봐요 또.”
	버스 이용 불편	특징	버스 정류장이 멈, 배차 간격이 김
		내용	· “왜냐면은 여기 시골에 나가서 버스 이게 하루면 4번 인데, 시간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오고 점심이 또 시간 안 맞추면 또 나가가 말까하고. 너무 일찍 나가면은 또 나가면은 이런거 해라 저런거 해라 이런거 해면 시간 끌고 가면 힘들고 또 오후 너무 늦게 가면은 일이 안 되고.” · “그렇게 버스 4번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 안맞으면 힘들고.”
	계절 및 농번기	특징	농번기에 동원됨
내용		· “나중에 둘째 낳으니까 어머니 아프면서 제가 일이 농사가 도와주는데 그때는 공부 못하는 거고.” · “네, 지금도 바빠요 하하하. 여기 저기 감자나 고추, 그런 거는 저는 심었기 때문에 농사는 매일 일이 있잖아요.”	
젠 더 화 된	공공재로서의 몸	특징	임신 후 운전 중단
내용		· “아니죠. 요즘에 저는 못가죠. 임신이라는 게 신랑은 차 못끌게 해요.” · “배 나오니까 신랑은 차 끌지 말고 혹시나 차 있어도 못 끌고 가고. 또 그 애기 낳아 한 10일 됐거든요?”	

사 회 관 계			근데 계속 저는 몸을 관리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는 일 거의 없으는거. 생각도..”
	어머니역할의 실천	특징	아이들 보육
		내용	· “아이가 셋이에요. 맨날 애들 키우고 하면 정신없어요.”
	가사 노동	특징	가사 노동 전반 담당
내용		· “저도 타고 싶지 저는 자전거 있지만은 뭐 바쁘서 살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바쁘니 거의.. 나가면 또 차 타고 막 그러니까 거의.. 만지지도 않아요. 하하하.”	

[표 5] 대상자 V의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제약 요건 종합

그러나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도 V씨는 읍외 외출을 별로 하지 않았다. 아이 둘을 키우며 가사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V씨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하루 4번 다니는 버스와 시간을 조정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운전 을 하기에는 공주 시내로 나가는 지방도의 환경이 무섭다. 읍내에서 도보 이상의 거리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V씨 소유의 차가 없기 때문이다. V씨는 읍내에서 약속이 있으면 누군가 데려가 주거나 남편의 차를 미리 쓰겠다고 약속받는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탔었지만, 지금은 이륜차 도로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남편도 반대해서 타지 않는다.

[연구자: 읍사무소 말고는 다른 곳은 안 가세요?] 네 못 갔죠. 왜냐면 시간 안 맞아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솔직히 여기 시골이면은 도시 나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가면은 시간 부담이고, 버스 시간 안 맞고,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이런 거 안 맞고 저런 거 안 맞고 못 나갈 때 많아요. 솔직히 저는 회장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다녀야하는데, 근데 못 다녀요.

축제 있으면은 가까우면은 가는데 너무 멀으면은 포기 돼요. 멀으면은 신랑이

안맞으면은 못가요. [연구자: 아 멀리 운전하기가 어려우세요?] 네 저는 그런 거 부담이고, 신량은 또 시간이 되야 가고, 저 아버님이 트럭 끄니까 그건 못가고. 그건 (아이 데려가는 데에) 문제 많이 생겨요.

(오토바이 타는 것) 생각 해 봤는데요, 근데 신량이가 여기서 오토바이 타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냥 안사 줬어요. 저 안에서 오토바이 하나 있는데 제가 와서 위험할까 봐서 누구를 갖다 줬나 봐요 또.

네 거의 나 이번 주 모임 있다고 얘기하면은 신량도 차 놓고 가고서 아버님 차 끌고 가서 일하고. 차 놓고 가고 그래요.

그러나 대상자 V는 놓여 있는 제약 상황에 대해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상술한 대상자 J와는 달리 현재 읍면부에 거주하는 것에도 별로 불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도시 출신으로 의류 판매업에 종사했던 J씨와는 달리 V씨가 출신국에서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V씨가 육체 이동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후술할 읍내 안 네트워크와 SNS를 통해 풍부한 인적 교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낯설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전에도 말은 도시지만은 저도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거의 친척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농사도 하고 논농사도 하고 저도 그런거 다 해봤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맞는거만 보는거지. 그런 낯선 것도 없어요.

2.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강화하기

(1) 오프라인 만남 가지기: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V씨의 인적 교류는 두 차원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는 가끔 읍내에

서 이루어지는 만남, 즉 육체 이동을 통한 직접 교류이며 두 번째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을 총합한 스마트폰 SNS를 통한 가상 이동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그가 정기 비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오프라인 인적 교류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V씨는 정착 초기에 시누이와 남편을 통해 이동하며 시내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 다녔지만, 임신을 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식구들이 걱정하여 방문을 중단하였다. 출산 이후에는 다문화 센터의 방학 기간으로 인해 시간이 맞지 않았다. 따라서 둘째 출산 때까지 방문 교육으로 한국어 배우고, 센터보다는 읍사무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읍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점점 낯을 익히게 되었다. 계속 읍사무소에 방문하던 V씨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내다가 최종적으로는 마을 다문화 주부 모임을 만들고, 회장 직을 맡게 되었다.

거의 저는 임신 6개월에다가 신랑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문화 센터에 신청해서 한국말 배우는데 저는 3개월 4개월밖에 못 배웠어요. 왜냐면 임신. 배가 그렇게 나오니까. 애기 낳을 때 되면은 그때는 또 방학 때예요 또. 센터 쉬는데다가 애기 낳은 다음에 제가 또 한글 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방문 교육. 방문 교육 프로그램 신청하다가, 한 2-3년 배웠어요. 계속. 첫째 낳았다가 둘째 낳았다가 계속 배웠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애(셋째) 임신하기 전에 다 저기 읍사무소에서 전화 왔어요. 방문하고. 거기서 방문하고 나가고. 저도 회장 맡고. 가서 일하고. 또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런거 배우고 저런거 배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배운 거예요. 그때는 애(셋째) 임신 전에. 애 낳은 뒤에는 저는 나가는 날도 있고 못 나가는 날도 있고.

읍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저는 회장 맡아서 한 2년 됐나, 한 2년 맡았어요. 거기(읍사무소)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의견을 내서. 올해 뭐하자 뭐하자 해서. 거기서 읍장님도 도와주고. 거기서 여기 분들(결혼이민여성) 중에 한 명이 회장하고 총무나 그런거 한 명씩 맡아서 이제 사람들 오라고 그런거 하면은 좋겠다

- 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안하고 제가 말았죠.

회장으로써 V씨는 모임 시간을 조정하고, 마을 다문화 여성들이 만나는 날을 만든다. 모임에는 베트남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다 모인다. 다들 읍에 살고, 육아와 가사 노동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기에 주로 읍내에서 만난다. 장소는 주로 외부로 정하는데, 누군가의 집 같은 경우 추가적인 가사 부담을 안겨 줄 수도 있고 시부모님이 계시면 불편하다는 사정을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와서 둘째 낳고 다니면서 읍사무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고, 친해지고, 뭐 필리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만나고 중국 분도 있고, 또 중국 사람도 만나고 거의 몇 명 알고 그래서 같이 지내서.. 요즘도 가끔 연락하고 그래요. 하하

XX(읍명)에서 만나요. 우리끼리 멀리 못가요. 거의 다 XX 살으니까 XX에서 밥 같이 먹고 모임을 또 해요 저는. 집까지 놀러가면 또 힘들어요 다. 다들 회사 다니고, 어떤사람은 또 부모 나이 들었기 때문에 돌봐주기 때문에, 집에까지 같이 하는거는 잘 힘들어요. 만나고 싶으면은 식당이나 커피숍 거기 가서. 네 유구에서. 가끔 한 두 시간이 되면은 커피 한 잔 먹고 얘기도 하고 뭐 먹는거 의논해서 같이... 네 다들 보통 차 알아서. 알아서 하면 가까운 사람이면 걸어오고. 저같은 경우면은 차 이용이 되고, 안그면은 미리 알으면은 차 안되면 버스 타고 나가고. 거의 그때 되면은 버스 타든지 아니면 차 타고 거의 제가 모임 보고 할 때는 거의 차 신랑차 끌고 가. 하하

현재 V씨는 셋째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모임에는 나가지 못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 '근데 지금 올해는 얘기 낳는게 제일이니까 아직 못 나가니까'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에도 친구 관계가 끊어지거나 모임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우려를 하고 있지 않았다. SNS 네트워크가 단단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온라인 만남: 메신저

V씨는 읍의 결혼이민여성들과 다양한 SNS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연결되어 있다. 동사무소나 센터에서 받는 알림은 카톡을 이용하지만, 다문화 주부 모임은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소통한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읍사무소에서 오는 여러 프로그램 공지를 번역해 올려 주기도 하고, 모임 날짜를 조정하기도 한다. 한글로 알림이 와도, 한국에 오래 산 여러 국적의 여성들이 다양하게 번역하여 전달해 준다. 모임 장소가 정해지면 여성들은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서로 태워주기도 한다. 자주 모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밴드에서는 자주 이야기를 한다.

다 해요. 카톡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밴드도 해요. 못하는 거 없어요 선생님. 하하하. 밴드 같이 하면은 모임. 한 일주일에 2번 나올 수 있으면은 나오고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하고~ 전화하면 한 명씩 하면은 힘들잖아요. 카톡방 들어가면 딱 문자 한 번 보내면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죠.

네, 왜냐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뭐 맡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카톡방을 위해서 한글로 올려요. 올리는 건 저 같은 경우 베트남 사람. 오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2-3년 안되는 동생들은 한국말 모르면 베트남 말 써요. 베트남 말 쓰면은 제가 답장해줘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하면 다들 이해하면은 그래서 같이 와서 만나고 나가서. 하여튼 필리핀 말도 나오고 중국말도 나와요. 베트남 말도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되는 사람이 표현해 줘요. 이해시켜 주는 사람이 저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해주는 입장이고, 부회장이 중국 분이고, 그러면은 중국말 해주고. 총무면은 필리핀 사람이고 그 언니는 필리핀 말 해주고,

그래서 베트남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입장이. 와서 (결혼이민)여성이지만은 저도 이해 조금 빠른 입장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을 천천히 해서 이해 시키는 거

에요 필리핀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저 아는 사람이면 다 조금씩 말하면
은, 어떻게든 (제가) 말 올리면서 이해만큼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한국에 산 지 14년차인 V씨는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후를 모두 경험하
였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결혼이민여성
들의 커뮤니티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복수의 관계자
들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남편과의 연
락, 특히 카카오톡과 전화를 사용할 용도로 스마트폰을 마련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은 자주 잊갈리고, 조정이 힘든 여성들의
시간 및 공간의 사이에서 늘 방문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플랫폼
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자와 V씨의 대화를 연구자가 문법
을 고쳐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자: 그렇군요. 아 그러면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땐 이런거(SNS 커뮤니티)
없다가 스마트폰 생기면서 이렇게 생긴거죠?

V: 네네

연구자: 스마트폰 생기기 전후가 많이 다른거 같으세요?

V: 네 많이 좋아지는 거죠. [연구자: 어떤 점이?] 어떤 점이라면은 그 전에라
면은 핸드폰이 전화만 그냥 폰이잖아요 문자 보내고. 그러면 한명이 저한테 보
내면은 저도 한명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회장 말지도 안했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말이 자꾸 이리저리 되는 거야. 정확한 말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만(한 사람만 전달) 돼. 단어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만 이해해서 그 이해하는 것만 얘기했다가, 다른 말은 얘기 안하고. 제가
들으면 거의 앞 뒤 안 맞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생
기면서 이런거는 제가 보면서 다 이해하면서 베트남말로 풀어서 이해되게 만
드는 거죠.

연구자: 그러니까 여럿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으신거죠. 다같이 바로.

V: 네네 저의 입장은 한 편으로는 한국 말 쓰고 한 편으로는 베트남 말도 써요.
그러면 중국 분이나 필리핀 사람이면은 한국말 보면서 모르면은 서로 다 알아
서 물어보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말 딱 보고는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은

못 간다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면은 네. 그러면은 카톡방 올라가면은 가나 안가나 하면은 거기서 바로 읍사무소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편해요 또. 그 전에도 핸드폰이면, 한명씩 한명씩 전화해서. 막 하고 설명하고~ [연구자: 복잡하죠.] 네 솔직히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하고 선생님(읍사무소 직원) 둘이 같이 얘기하면 한번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설명하고 저 사람도 설명하고. 선생님 힘들어요. 서로 힘들고, 듣는 사람 안 힘들지만은 전화 하는 사람 힘들어요. (V씨와 연구자의 대화에서 발췌)

스마트폰 지금은 많이들 줌 갖고는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시집 오자마자 사주고 그렇지 않더라구요. 줌 어느 정도 되고. 남편이랑 연락 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주는 거지. (방문 교사)

V씨는 스마트폰의 형성 이점에 대하여 쌍방향으로 동시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주선하거나 말을 전달하는 일이 어려웠다. 결혼이민여성들끼리도 국적이 다르고, 한국말 습득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말로 올라오는 공지도 실시간으로 알려 줄 수 있고, 읍사무소에 모임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바빠서 읍사무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전달받고, 마음이 내키면 나올 수 있다. 시간이 없거나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아예 오프라인 모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온라인 채팅방에서 소통하며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일은 없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3. 기능 추구: "다같이 잘사는 마을"

위에 서술한 내용을 통해서 V씨는 본인이 처한 여러 시,공간적 제약의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말했던 여러 응답자들과는 달리, 그는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는 그가 현재 막 출산한 아이 때문

에 전혀 집 밖 외출을 할 수 없음에도, 스마트폰이라는 모빌리티스 재화를 활용한 가상 이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연결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NS커뮤니티에 강하게 소속되어 있으면, 오프라인 모임에 나갈 수 없어도 관계 지속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인 '기능'과도 맞아떨어진다. V의 삶에서 기능은 다문화 주부 모임의 회장으로써 사람들을 '묶어놔주는' 것, 그리하여 다 같이 잘사는 것이다.

네네네 하하하.. 뭐 옛날 그런거 없지만은 한 2년, 3년 됐을거예요. 이런 카톡방도 하고 왜냐면 제가 회장에 올랐을 때부터 제가 그런거 만들어 뒀으니까. 묶어놔주고, 그래서 같이 친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하여튼 마음에서부터 도와주려고 그래요.

네 지금은 저는 (출산 때문에 잠시) 안 나가지만은 혹시 모임 하면은 다른(새로운) 사람 올 수 있어요. 작년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못 나가니까 큰소리(큰 활동) 못하고. 그래도 작년... 올해에도 지난달에. 읍장님에서 전화 또 왔어요. 밥 같이 먹으러 나가라고.

여기는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집에도 있고 여유도 괜찮고. 그게 좀 되야 되니까. 그 정도 할 만한 능력은 또 돼. (새마을회 관계자 Y)

V씨에게 있어 가사 노동과 어머니역할로 인한 시간 제약의 특성, 즉 늘 집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작은 마을 단위에서 오히려 항상 집에 있고 늘 방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항상 집에 있고 수시로 응답할 수 있는 회장은 공장의 주야간 일을 하거나 하우스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여성들보다 방문하기 편한 존재이다. 남편의 차로 읍내 안에서만은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도 여차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러 외출하기 편하다는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V씨를 통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제약이 오히려 개인의 맥락과 만나서 다른 사회적 활동의 가능성으로 뻗어나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V씨는 처음 모임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면서 모두가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결혼이민여성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열린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가족끼리 안면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시간과 공간의 중첩된 제약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실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웃이나 가족보다도 더 큰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공주시 결혼이민여성들이 겪는 모빌리티스 제약의 매커니즘을 제 1층위 사회·환경적 맥락과 제 2층위 개인적 맥락에서 확인하였다.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분석틀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은 공간 환경과 젠더화된 사회 관계라는 사회·환경적 맥락을 공간 접근성과 시간 주권성의 개인적 맥락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보편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행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간 접근성을 제약당한 결과 이들의 이동 행태는 읍내로 제한되거나, 외부 자원과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동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간 주권성 제약의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은 시간 자원 및 주체성이 대체로 결여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간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막연하고 불확정적인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스를 토대역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위해 어떠한 능동적인 전략과 협상을 거치는지를 동시에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지구적으로 이동의 속도와 스케일을 확대시키고 보편화시킨 모빌리티스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연구 내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사물 이동 및 가상 이동을 통하여 제한된 육체적 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탐구할 수 있었다. 이는 읍면부 단위까지도 스마트폰 사용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보편화된 한국의 농촌이라는 맥락이었기에 관찰 가능했던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모빌리티스 이론의 요소들을 토대역량 접근과 접목하여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모빌리티스 이론은 국제 이주나 집단 이주 등의 거대 현상, 혹은 모빌리티스 시스템의 진화라는 거대 인프라의 성장

을 주로 다루어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모빌리티스 이론의 요소들을 세분화시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Urry의 ‘네트워크 자본’, Kaufman의 ‘자본으로서의 모빌리티(motility)’등의 연구만이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이동의 잠재력을 평가할 뿐 실제 이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동을 토대역량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동이 곧 개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자유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동의 확대는 자유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Sen의 이론이 갖는 의의와 동일하게 지역 발전 및 이동성에 관련된 인프라를 평가하는 대안적인 시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젠더 관점이 도시·지역 계획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하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간 이동성에 관련된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그간의 도시·지역 계획 정책은 부족한 물리적 하부구조의 저량을 보충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차에 따라 지역 내 인프라의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주시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륜차 도로의 수요, 읍면 외부로 빠져나갈 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 버스 계절의 영향에서 안전한 버스정류장의 수요, 스마트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 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 계획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 하부구조에 대한 개선 이상의 세심한 고려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 동안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많은 국가적 조사 및 연구들이 그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으나, 이동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연구가 전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장 대규모 조사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조차도 사회적 네트워크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존재하지만, 이동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없다는 것이 이러한 관점 누락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토대역량으로서의 모빌리티스 관점을 통해 이동이 자유이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은 결혼이민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이렇게 결혼 이민여성들이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아 좋은 삶을 누리는가의 여부는 이들을 일원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다른 일원들과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국가적 단위의 실태조사에 이동성이 포함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연구자는 공주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이후 현지 관계자들의 소개와 여성들의 소개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연구 대상자, 특히 읍면부 거주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조차 접근이 어렵고, 모든 움직임이 가족들의 감시 하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센터로의 외출이 자유로운 상태이거나, 혹은 가족들이 연구에 호의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가정 방문, 가족들의 허락 구하기, 센터로 오기 전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기, 추가 면담 등의 노력을 하였다.

두 번째 한계로는 분석틀 상의 변수들이 갖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자는 모빌리티스 제약을 제1층위와 제2층위로 나누었고, 사회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로 젠더화된 사회 관계와 공간 환경을 들었다. 그러나 실상 젠더화된 사회 관계와 공간 환경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도시 및 지역의 건조(built-in) 환경의 경우 여성의 수요가 과소 반영되었으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이 두 가지 요소를 나누어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료하게 모빌리티스에 관한 문제 의식을 설정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한 여타 사회적 맥락, 특히 인종과 경제 상태를 누락시켰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들은 결혼이민여성의 모빌리티스 연구에 특화된 것이며, 연구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맥락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추후 후속 연구가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맥락이 포함되어 더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16p)

[논문]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공]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6-02-0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은. (2007). 적응과 세력화의 경계에 선 '외국인 아내들' : 농촌 지역의 베트남 결혼리민자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7). Gender Roles, Accessibility, and Gendered Spatiality. 대한지리학회지, 42(5), 808-834.
- 김현미. (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시·공간적 구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358-374.
- 노시학. (1996). 도시교통의 사회적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37-47.
- 노시학. (2014). 교통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통연구, 21(4), 67-86.
- 손문금. (2010).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1.
- 신경림,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성상, Sung Sang Yoo, 이은혜, & Eunhye Lee. (2016). Amartya Sen의 토대역량 접근과 교육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5(1), 119
- 윤신희, Shin Hee Yun, 노시학, & Shi Hak Noh. (2015). 새로운 모빌리티스(New Mobilities)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4), 491.
- 윤신희, Shin Hee Yun, 노시학, & Shi Hak Noh. (2016). 모빌리티스(Mobilities)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 및 측정변수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0(4), 503.
- 이선형. (2013).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지혜. (2010). 국제결혼을 통한 송금이 여성 결혼이주자 고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kire, S. (2005). Why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115-135.
- Bærenholdt, J. (2013). Governmobility: The Powers of Mobility. *Mobilities*, 8(1), 20-34.
- Cass, N., Shove, E., & Urry, J. (2005). Social Exclusion, Mobility and Access. *The Sociological Review*, 53(3), 539-555.
- Clark, D.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Its Development, Critiques

and Recent Advances.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2005.

Drèze, J., & Sen, A. (2002). Democratic Practice and Social Inequality in Indi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37(2), 6-37.

Gardner, & Abraham. (2007). What drives car use?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commuters' reasons for driving.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Psychology and Behaviour*, 10(3), 187-200.

Hannam, K., Sheller, M., & Urry, J. (2006). Editorial: Mobilities, Immobilities and Moorings. *Mobilities*, 1(1), 1-22.

Jordan Frith (2012) Splintered Space: Hybrid Spaces and Differential Mobility, *Mobilities*, 7:1, 131-149,

Kaufmann, V., Bergman, M., & Joye, D. (2004). Motility: Mobility as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4), 745-756.

Kaufmann.V. (2014). Mobility as a Tool for Sociology, *Sociologica, Italian journal of sociology on line*.

Kwan, M., Murray, A., O'Kelly, M., & Tiefelsdorf, M. (2003). Recent advances in accessibility research: Representation, methodolog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5(1), 129-138.

- Law, J. (1999). After ANT: Complexity, Naming and Topology. *The Sociological Review*, 47(1_suppl), 1-14.
- Mitra, S. (2006). The Capability Approach and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6(4), 236-247.
- Nina Glick Schiller & Noel B. Salazar (2013) Regimes of Mobility Across the Glob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9:2, 183-200
- Robeyns, I. (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3), 61-92.
-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93-117.
- Sheller, M., & Urry, J. (2000). The City and the Ca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4), 737-757.
- Sheller, M. (2006), "Mobility systems, urban disasters, and the rescaling of New Orlean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nnual Meeting Chicago*,
- Sheller, M., & Urry, J.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2), 207-226.
- Sheller, M. (2014). The new mobilities paradigm for a live sociology. *Current Sociology*, 62(6), 789-811.

Sheller, M. (2017). From spatial turn to mobilities turn. *Current Sociology*, 65(4), 623-639.

Shin, H.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48(11), 2355-2373.

[단행본]

유기웅.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유기웅 [외]저*. 서울: 박영사.

Massey, & 정현주. (2015). 「공간, 장소, 젠더」 / 도린 매시 지음 ; 정현주 옮김 (Studia humanitatis 문명텍스트 ; 24).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Urry, 강현수, & 이희상. (2014). 「모빌리티」 / 존 어리 지음 ; 강현수, 이희상 [공]옮김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서양편 ; 556). 서울: 아카넷.

Crotty, M., 신경림 & 공병혜. (2001). 「현상학적 연구」. 현문사.

Giddens, & 김미숙. (2011). 「현대 사회학」 / 앤서니 기든스 지음 ; 김미숙 [외]옮김 (제]6판. ed.). 서울: 을유문화사.

Adey, P. (2010). *Aerial life : Spaces, mobilities, affects / Peter Adey*. (RGS-IBG book series). Chichester ; Malden, MA:

Wiley-Blackwell. 62(6), 789-811.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Nussbaum. M & Glover. J. (1995).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electronic Resource] : A Study of Human Capabilities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 Amartya Sen.
(Professor Dr. F. de Vries lectures in economics ; v. 7).
Amsterdam: North-Holland.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 Amartya Sen. New York:
Knopf : Anchor Books.

Sheller, M. (2013). Sociology After the Mobilities Turn from: The
Routledge Handbook of Mobilities. Routledge

Uteng, Cresswell, Uteng, Tanu Priya, & Cresswell, Tim. (2008).
Gendered mobilities / edited by Tanu Priya Uteng, Tim
Cresswell. (Transport and society). Aldershot, England ;
Burlington, VT: Ashgate.

Abstract

A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Mobilities in Korea:

Focused on Constraints and Solutions,
A Case Study of Gongju-si, Republic of Korea

Soojung Ha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rives to clarify the mechanism of mobilities constraint encountered by married migrant women and what are the negotiations and solutions, mainly through case studying Gongju-si. In the perspective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mobilities constraints problem, which residents of so-called peripheral region experience, has been considered the problem rooted from geographical access and at the same time of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ence, it has long been believed that expanding infrastructure is the only solution in Korea.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ement on spatial structure in macroscopic scale cannot always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mobility.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mechanism of mobilities constraint by actively examining the space and the social relations jointed to the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y understanding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through the notion of 'Mobilities as Capabilities'. 'Mobilities as Capabilities' is a joint approach between John Urry's 'New Mobilities Paradigm' and Amartya Sen's 'Capabilities Approach', and is useful in for two aspects. First, 'Mobilities as Capabilities' approach claims that the individual freedom should be expanded, and thereby makes it possible to examine mobility as a freedom to achieve the doings and beings that individual wants. Second, 'Mobilities as Capabilities' approach makes it easy to apply the elements of 'New Mobilities Paradigm', which is often macroscopic and vague, to the individuals in microscopic scale.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Marriage Migrant Women, the object of this study, who had practiced a transnational migration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raffic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ut they are in the situation of mobilities constraint since the arrival in Korea. First, in the first level of 'Mobilities as Capabilities' suggested by the author, marriage migrant women as Others in gender, race and class, are stuck limited in dual mobilities constraint of spatial environment and gendered social relations. Specifically, the four problems of spatial environment, the form of local road, the lack of motorcycle road, limited bus service time, seasonality and another four problems of from gendered social relations such as maternity practice, restraint and confinement, mothering practice, domestic labor contributes to their mobilities constraint.

Second, in the second level of 'Mobilities as Capabilities' mechanism, the two problems of spatial environment(the form of local road, the lack of motorcycle road) and another two problems of gendered social relations(maternity practice, restraint and confinement)

reduce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married migrant women. As a result, they go through the problem of 'limitation of mobility within the town' by only moving in short time, short distance within *eup*, the town. As they get isolated from external resources, information and network, this also results in 'additional mobility constraint'. Moreover, their time sovereignty has violated with the two problems of spatial environment (limited bus service time, seasonality) and another two problems of gendered social relations (mothering practice, domestic labor). Thus, those marriage migrant women were facing hard time compromising many schedules at the same time, and the phenomenon of 'dependence on spouse's schedule' took place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y lack time resources and control on time, and show 'uncertainty of future plan'.

However,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mobilities constraint of marriage migrant women, but also through the case studies on how they overcome the constraint, and thereby highlights them as active subjects. The capac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invigorated by negotiating and making strategies from the reality they face. They, for the 'functionings', the doings and beings they want, utilized 'Mobilities as Capabilities', and improved their life. In this study, the author introduces the narratives of three women; they respectively seek functionings of 'being a big owner', 'life improving', 'making town that all lives together', strengthened their own 'Mobilities as Capabiliti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nabled the study in a microscopic scale by bridging elements of mobilities theory and capabilities approach. Through the notion of 'Mobilities as Capabilities', this study defined mobility is freedom that enables individual to achieve the life they want. Thus the expansion

of mobility means expans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this can function as alternative perspective to evaluate regional development and mobility infrastructure. Second, this study reassures that gender perspective is useful on evaluat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thereby necessary. This study emphasizes that urban and regional planning requires more than just improvement on physical infrastructure.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many national surveys and studies on marriage migrant women lacks the perspective on mobility. However, this study identified through 'Mobilities as Capabilities' that mobility is a freedom and the right to be reserved, and thereby requires policy-level attention.

keywords : Mobilities, New Mobilities Paradigm, Mobilities as Capabilities, Capability Approach, Marriage Migrant Women, Feminization of migration

Student Number : 2017-24041